黃帝內經 以前의 醫學書籍에 관한 考察[1)]

-黃帝內經의 引用文獻을 중심으로-

金 勳[2)]

A Study of the medical Books before the HawngJeNeKyung

Kim Hoon

Although the HawngJeNeKyung(黃帝內經) was regarded as the the extremly aged book in oriental medicine history, We can find out many quotations in the HawngJeNeKyung. Some of this quotations are applicable to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戰國), but the other quotations are correspond to its after the period of HouHan(後漢). The books included before the QianHan(前漢) are 12 kinds of books, such as KyuTak(揆度), KiHang(奇恒), SangKyung(上經), HaKyung(下經), etc. The books included after the HouHan(後漢) are 5 kinds of books, such as CheonWonOkChek(天元玉冊), DaeYo(大要), HyunJuMilEo(玄珠密語), etc. Founded on these various books, the theories of oriental medicine was accomplished in the HawngJeNeKyung.

Ⅰ. 들어가는 글

學問의 歷史는 책의 歷史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學問的 業績이 책에 담겨있고, 책을 통해 면면히 繼承·發展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의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黃帝內經』이후 수많은 의학서적이 출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도한 의학의 흐름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黃帝內經』이 한의학 最古의 의학서적으로 지칭되지만, 『黃帝內經』 이전에 아무런 근거나 바탕이 없이 지금의 完整한 형태의 『黃帝內經』이 만들어졌다고

---

1) 본 논문은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일부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2)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는 볼 수 없을 것이다. 『黃帝內經』은 한의학의 기본적 사고 및 의학이론의 틀을 거의 완비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업적물이 이전의 의학적 성과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돌출적으로 출현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黃帝內經』 이전의 醫學文獻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黃帝內經』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黃帝內經』 이전의 醫學文獻에 관한 자료들은 『漢書藝文志』 등에 도서목록만 수록되어 나올 뿐 현재까지 전승되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이후 馬王堆漢墓를 비롯한 일단의 고고학적 발굴자료가 발견되면서 戰國時代에서 前漢初에 이르는, 즉 『黃帝內經』 편성이전[3]의 의학적 상황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먼저 『漢書藝文志』, 『史記列傳』 등에 나타난 醫學書籍 및 近現代의 考古學的 발굴자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 『黃帝內經』 안에 언급된 인용문헌을 중심으로 內經이전의 의학서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黃帝內經』 以外의 文獻資料에 나타난 醫學書籍

1. 『漢書藝文志』에 수록된 醫學書籍

주지하는 바와 같이 『黃帝內經』이란 書物이 문헌상 가장 최초로 기록되어 나오는 곳은 『漢書藝文志·方技略』이다. 『漢書藝文志』는 成書時期가 作者인 班固의 生沒年代인 서기 32년에서 92년 사이가 되므로 대략 後漢初에 해당된다. 따라서 後漢初에 『黃帝內經』이란 書物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도 『黃帝內經』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것은 『漢書藝文志·序』에서 밝힌 바대로 「藝文志」의 體制와 내용이 이전의 『七略』에 기초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4]. 즉 「藝文志」 이전에 『七略』에 『黃帝內經』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國歷史에 있어 정부 주도로 醫學書籍이 대대적으로 收集·整理·校正되었던 중요한 사건은 3번 정도 있었다. 그 첫 번째는 前漢 成帝 때이며, 두 번째는 北宋代의 소위

3) 『黃帝內經』의 편성시점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초기의 자료는 戰國時代에 해당될 것이지만 '運氣七篇'이 補入되는 시점인 唐代, 더 늦게는 '素問遺篇'이 補入되는 北宋代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黃帝內經』의 중요내용은 주로 漢代以前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黃帝內經』의 저작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黃帝內經概論』을 참조할 것.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4) "會向卒 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 歆於是總群書而奏其七略. 故有輯略 有六藝略 有諸子略 有詩賦略 有兵書略 有術數略 有方技略. 今刪其要 以備篇籍." (班固, 漢書藝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10.)

'新校正' 작업이며, 세 번째로 淸代의 『四庫全書·醫家類』 편성작업을 들 수 있다[5].

그 가운데 前漢 成帝 때의 작업은 역사상 가장 최초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략은 『漢書藝文志·序』에서 밝혀 놓고 있다. 즉 前漢 成帝時 天下의 遺書를 수집하게 하여 劉向으로 하여금 經典·諸子·詩賦의 정리를 담당하게 하고, 任宏에게 兵書를, 尹咸에게 術數書를, 李柱國에게 方技書를 교정하게 한 것이다[6]. 따라서 醫學書籍은 侍醫인 李柱國에 의해 최초로 整理·校正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책을 교정하면서 각 책의 교정내용과 篇目 및 旨意를 책의 전면에 상주해 놓았다.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묶어 劉向의 主編·완성한 것이 『別錄』이며, 劉向이 죽자 아들 劉歆이 계승하여 책을 輯略·六藝略·諸子略·詩賦略·兵書略·手術略·方技略으로 大別하여[7] 圖書目錄集을 완성한 것이 『七略』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이 「藝文志」 이전 『七略』에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七略』은 建平元年에 上奏되어 前漢末, 대략 기원전 6년에 완성되었으므로, 前漢末에 『黃帝內經』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물론 『七略』은 唐宋間에 망실된 것으로 전해져 현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甲乙經·序[8]』를 보건대 망실되기 이전에 魏晉代의 皇甫謐은 『七略』에 수록된 『黃帝內經』을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前漢末 『七略』에 『黃帝內經』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黃帝內經』이 적어도 前漢末에는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七略』과 「藝文志」에 수록되어 나오는 『黃帝內經』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素問」과 「靈樞」를 合編한 『黃帝內經』과 동일한 書物인가 하는 점이다. 後漢末 張仲景의 『傷寒雜病論·序』에는 『素問』과 『九卷』을 거론하고 있고[9], 唐代에 이루어진 『隋書·經籍志』에도 『黃帝素問九卷』과 『黃帝鍼經九卷』이

---

5) 『四庫全書』 編成 이전에도 明·淸代에 정부가 주도하여 의학서적의 내용을 分類·聚合한 일이 있었다. 明代에 이루어진 『永樂大典』은 『洪武正韻』의 문자 순서에 따라 여러 醫書의 내용이 截錄되어 항목별로 編成되기도 하였으며, 淸代에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은 百科全書의 체제를 따라 주제에 관련한 다양한 醫書의 내용이 分類 聚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永樂大典』과 『古今圖書集成』은 항목별로 分類 聚合·截錄하여 一書를 그대로 校正 整理한 『四庫全書』와는 編成體制가 다르다.

6) "至成帝時 以書頗散亡 使謁者陳農求遺書於天下. 詔光祿大夫劉向校經傳諸子詩賦 步兵校尉任宏校兵書 太史令尹咸校數術 侍醫李柱國校方技. 每一書已 向輒條其篇目 撮其指意 錄而奏之." (班固, 漢書藝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p. 8-9.)

7) '輯略'은 圖書의 총목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도서를 6대류로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七略』과 『藝文志』에 수록되어 있는 '黃帝內經 18권'을 생각할 때 현재 『素問』 9卷과 『鍼經』 9卷이 있어 도합 18卷이 되므로 바로 이 두 책이 內經이다.(按七略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今有鍼經九卷·素問九卷 二九十八卷 卽內經也.)" - 『鍼灸甲乙經·序』

9) "感往昔之淪喪 傷橫夭之莫救 乃勤求古訓 博采衆方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 幷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20.)

수록되어 나오지만 “內經”이란 언급은 나오질 않는다. 따라서 前漢末과 後漢初에는 존재했던 『黃帝內經』이 그 이후 사라지고 後漢末에 들어와 “素問”과 “鍼經(九卷)”이 나타나 별도로 거론·언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素問』과 『鍼經』을 『黃帝內經』으로 함께 지칭하게 된 것은 皇甫謐의 『甲乙經·序』에서부터 시작된다[10]. 이후 별다른 의심없이 皇甫謐의 견해를 따르게 되었는데 극단적으로 의심하게 되면 「藝文志」에 언급된 『黃帝內經』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素問」 및 「鍼經」이 관련성 없는 별도의 다른 문헌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藝文志」는 『黃帝內經』의 書目만 수록하고 그 내용의 문장 일부분도 수록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의심을 반박할 증거는 사실상 없다. 『甲乙經』은 皇甫謐의 自序에 의하면 甘露元年에 編成되어 서기 256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藝文志」에 『黃帝內經』이 수록된 시점과 약 20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皇甫謐의 말에만 의지해 『黃帝內經』을 “素問”과 “鍼經”으로 분명히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또한 皇甫謐의 이런 견해를 부정할 근거가 문헌자료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素問”과 “鍼經”, 그리고 『黃帝內經』과의 관련성 여부는 차후 새로운 고고학적 문헌자료가 발굴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가지 부언하자면 중국의 문헌전승의 전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대 문헌들이 당대의 문화·학술적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내용첨삭을 거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冊名이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술논쟁의 대표가 바로 漢代에 있었던 今·古文論爭이며, 이후 考證學分野에서 주요 論題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黃帝內經』이 “素問”과 “鍼經”으로 분리되었었는지, 아니면 후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에 분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前漢代의 의학적 지식이 총괄되어 『黃帝內經』으로 編輯되고[11] 後漢末에 이르러서는 “素問”과 “鍼經”으로 사실상 分冊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藝文志」의 ‘七略’ 가운데 의학서적은 「方技略」에 수록되어 있는데, ‘方技’란 고대의 醫術·占術·天文·觀相에 관한 기술을 가르킨다[12]. 또 「藝文志」에서는 “方技라는 것은 生命을 살리는 재능으로써 관직의 하나이다. 태고에는 기백과 유부가 있었고 중세에는 편작과 진화가 있었는데, 대개 병을 이야기함으로써 국정에 미치었고 진단에 바탕하여 다스리는 것을 알았다. 한나라때는 창공이 유명하였다. 지금은 그 기술이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그 서적을 방기의 4종으로 순서를 정하여 서술한다.”[13]라고 설

10) 앞의 註7을 참조할 것.

11) 물론 『黃帝內經』에 戰國時代 또는 그 이전의 醫學的 知識과 資料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黃帝內經』의 구조적 근간을 이루는 ‘陰陽五行說’이 鄒衍 이후에 일반화된 점, 그리고 五行配屬 등이 今文說을 따르고 있는 점 등을 보건대 대체적으로 『黃帝內經』의 중요내용은 前漢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2)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7, p. 747.

명하고 있다. 즉 「藝文志·方技略」은 '醫經', '經方', '房中', '神仙'으로 구분하여 圖書目錄을 수록하고 있는데, 모두 생명을 다루고 살리는 것(生生之具)으로, '醫經'과 '經方'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 '房中'은 자손을 생산하는 것, '神仙'은 사람을 長生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중 실제적 의미의 의학서적은 '醫經'과 '經方'에 수록되어 있다.

'醫經'의 개념에 대해 「藝文志」에서는 "'醫經'이라는 것은 인체의 血脈·經絡·骨髓·陰陽·表裏에 근본하여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과 생사의 구분을 캐내고, 箴石·湯火가 시술되는 것이 절도있게 쓰이도록 하고, 모든 약이 (치우침 없이) 가지런하고 조화로운 마땅한 것에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극히 가지런한 균형상태가 되면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사물이 서로 작용하게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잃어버리고 나을 병을 더욱 위중하게 하고 살 것을 죽게 한다."[14]라고 하였다.

'經方'의 개념은 「藝文志」에서 "'經方'이라는 것은 草石의 寒溫을 기본으로 삼고 질병의 淺深을 헤아리며 藥味의 맛을 빌리고 氣가 감응하는 마땅함을 통해 五苦六辛을 변론하고 水火의 균형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막힌 것을 뚫고 맺힌 것을 풀리게 하여 평형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마땅한 것을 잃게 되면 뜨거운 것을 더욱 뜨겁게 하고, 차가운 것을 더욱 차갑게 하며, 精氣가 안으로 손상되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돼 홀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속담에 말하길 '병이 있어 치료하지 않는 것도 항상 중간 정도의 의사는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5]라 하였다.

馬繼興은 『中醫文獻學』에서 '醫經'은 醫學理論書籍으로, '經方'은 方書·本草·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 등의 書籍으로 말하고 있다[16]. 이렇게 볼 때 '醫經'은 基礎理論書를, '經方'은 臨床書를 수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醫學書籍을 구분하고 있는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란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 '醫經七家'와 '經方十一家'에 동일하게 '家'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한권의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學派'로 해석하여 추론하는 경우도 있다. 즉 중국고대의학의 성립과정에 黃帝學派·扁鵲學派·白氏學派의 중요한 3대학파가 활동했었고 거론된 書目은 실제의 書籍名이 아니라 총괄적인 명칭이라는 것이다.

---

13) "方技者 皆生生之具 王官之一守也 太古有岐伯兪拊 中世有扁鵲秦和 蓋論病以及國 原診以知政 漢興有倉公 今其技術淹昧 故論其書 以序方技爲四種"

14) "醫經者 原人血脈經絡骨髓陰陽表裏 以起百病之本 死生之分 而用度箴石湯火所施 調百藥齊和之所宜. 至齊之得 猶慈石取鐵 以物相使. 拙者失理 以瘉爲劇 以生爲死." (班固, 漢書藝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239.)

15) "經方者 本草石之寒溫 量疾病之淺深 假藥味之滋 因氣感之宜 辯五苦六辛 致水火之齊 以通閉解結 反之於平. 及失其宜者 以熱益熱 以寒增寒 精氣內傷 不見於外 是所獨失也. 故諺曰 有病不治 常得中醫" (班固, 漢書藝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241.)

16)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4.

그러나 『漢書藝文志』가 圖書目錄集이라는 점, 또한 아울러 書目에 각기 분명하게 卷數를 명기하고 있는 점, 의학서적이 아닌 다른 문헌목록에도 역시 '家'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생각해 볼 때, 「方技略」의 '醫經七家'와 '經方十一家'는 총괄적인 명칭이 아니라 독립된 서적을 수록·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 부언하자면 '醫經七家'가 총괄적 의미가 아닌 별개의 書目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혹시 고대의학이론의 발생과정에 黃帝·扁鵲·白氏(또는 그 學派)가 큰 영역을 차지하여 3대류를 형성했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즉, 白氏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상고할 수 없어 제외하더라도 黃帝와 扁鵲을 대

醫經七家 216卷	經方十一家 274卷
	五藏六府痹十二病方三十卷
	五藏六府疝十六病方四十卷
黃帝內經十八卷	五藏六府癉十二病方四十卷
外經三十七卷	風寒熱十六病方二十六卷
扁鵲內經九卷	泰始黃帝扁鵲俞拊方二十三卷
外經十二卷	五藏傷中十一病方三十一卷
白氏內經三十八卷	客疾五藏狂顚病方十七卷
外經三十六卷	金創瘲瘛方三十卷
旁篇二十五卷	婦人嬰兒方十九卷
	湯液經法三十二卷
	神農黃帝食禁七卷

비하여 추론해 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다시 말해 黃帝는 宮中이나 정부 주도의 의학적 성과가 결집된 것이며, 扁鵲은 민간주도의 의학적 성과가 결집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17], 차후 엄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方技略」의 '醫經'과 '經方'의 書目 가운데 『黃帝內經』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문헌들은 전승되지 않아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 다만 '醫經七家'의 내용을 보면 黃帝·扁鵲·白氏와 관련하여 각기 '內經'과 '外經'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內科'와 '外科'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셉니담은 '內經'의 '內'는 현세적·합리적·실제적·과학적인 것을 의미하고, '外經'의 '外'는 내세적·신비적·비물질적·종교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18]. 또한

17) 扁鵲은 한사람만을 가르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春秋戰國時代에 형성되기 시작한 민간의 전문의사집단을 대표하는 말이다. '扁鵲'이란 말도 '전국을 遍歷하는 민간의 전문의사'를 의미한다. 拙著를 참고할 것. (金勳, 扁鵲의 行蹟과 名義에 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14권 1호, pp. 79-108.)

18) "內는 현세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반복될 수 있으며, 증명될 수 있는 즉 한마디로 과학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外란 내세적인 모든 것, 귀신·영혼·성인·신선 등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예외적이고, 기적적이고, 이상하고, 신

중국고대 문헌의 전통에서 살펴볼 때 抱朴子 內·外篇처럼 '內'는 본래의 주제를 담고 있는 本篇의 의미가 강하고, '外'는 內篇(本篇)에 대해 부연하는 續篇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內經'은 現世的·合理的·實際的인 의학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며, '外經'은 來世的·神秘的·非物質的인 神仙思想이나 鉛丹術, 呪文, 祈願 등의 부수적 의학의 의미를 담고있는 서적으로 생각된다.

2. 『史記列傳』에 수록된 醫學書籍

『史記·扁鵲倉公列傳』에는 扁鵲과 淳于意의 記事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醫學書籍이 나온다.

扁鵲은 長桑君으로부터 '禁方書'를 傳受받았다고 하였는데[19], '禁方書'가 원래의 책 제목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말로 단순히 의학서적을 의미하여 '秘方書'를 뜻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후 같은 列傳의 기록 중에 陽慶이 淳于意에게 의학서적을 전수해주면서 "나는 집이 부유하며 마음으로 公을 아껴서 나의 '禁方書'를 모두 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我家給富 心愛公 欲盡以我禁方書悉教公.)"라고 하여 '禁方書'가 의학서적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長桑君이 扁鵲에게 전수해 주었던 '禁方書'는 하나의 의학서적을 가르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의학서적 일반을 총칭하는 말로 생각된다. 즉 '禁方'은 그 의미가 內經에서 언급되고 있는 "非其人不教"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누설하지 않음'을 뜻하여 의학을 하는 사람의 자질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명칭으로 생각된다.

淳于意의 기록에는 보다 분명한 의학서적의 이름이 열거되어 나온다. 淳于意는 스승인 公乘[20]陽慶으로부터 의학서적을 전수받았는데, 그 서적들은 『脈書』·『上下經』·『五色診』·『奇咳術[21]』·『揆度』·『陰陽外變』·『藥論』·『石神』·『接陰陽禁書』 등이다[22]. 陽慶은 淳于意에게 이러한 의학서적을 물려주면서 말하길 "네가 가지

비스럽고, 이 세상것 같지 않고, 우주밖의, 물질밖의, 그리고 비물질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대 서적 목록들이 『黃帝外經』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그것은 기원후 몇세기 동안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外經』이 그렇게 일찍 사라졌다는 사실은 중국의학의 마술적·종교적 측면-왜냐하면 주문, 마법 및 기원에 의한 치료는 분명히 『外經』에 속하였을 것이기 때문에-이 아주 부수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김영식편, 중국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창작사, 1986, pp. 272-273.)

19) "長桑君 … 乃呼扁鵲私坐 閒與語曰 我有禁方 年老 欲傳與公 公毋泄. 扁鵲曰 敬諾. 乃出其懷中藥予扁鵲 飮是以上池之水 三十日當知物矣. 乃悉取其禁方書盡與扁鵲. 忽然不見 殆非人也"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 698.)

20) 公乘: '公家의 수레를 타는 사람'이란 뜻의 爵位名으로 公家의 護衛와 接待를 담당함. 혹은 爵位名으로 유래된 姓氏를 말하기도 함.

21) 二十五史點校本에는 '奇咳術'로 되어있고, 漢文大系本에는 '奇胲術'로 되어있다.

22) "太倉公者 齊太倉長 臨菑人也 姓淳于氏 名意. 少而喜醫方術. 高后八年 更受師同郡元里

고 있는 의학방서를 모두 버려라.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나에게는 전해오는 古先의 道가 있어 '黃帝와 扁鵲의 脈書' 및 '五色診病'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生死를 알 수 있고 의심스러운 것을 판별할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藥論'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정밀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후 『史記列傳』에는 淳于意의 診察記錄簿인 소위 '診籍'이 실려 나오는데, 이 '診籍' 가운데 10여 차례 인용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淳于意는 기존 醫書의 내용을 인용할 때 "脈法曰", "法曰", "診脈法曰", "論曰", "扁鵲曰", "診法曰", "其脈法奇咳言曰"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23], 그 중 "脈法曰 熱病陰陽交者死"라는 언급이 素問의 「評熱病論篇 第三十三[24]」과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25]」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內經 안에 비슷한 문장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診籍'에서는 대부분 『脈法』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뒤에 기술할 馬王堆漢墓의 『脈法』 및 張家山漢墓에서 발굴된 『脈書』 등에서도 이와 같은 문장을 볼 수가 없다[26].

公乘陽慶. 慶年七十餘 無子 使意盡去其故方 更悉以禁方予之 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死生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 甚精. … 至高后八年 得見師臨菑元里公乘陽慶. 慶年七十餘 意得見事之. 謂意曰 盡去而方書 非是也. 慶有古先道遺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死生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書 甚精. 我家給富 心愛公 欲盡以我禁方書悉教公. 臣意卽曰 幸甚 非意之所敢望也. 臣意卽避席再拜謁 受其脈書 上下經 五色診 奇肱術 揆度 陰陽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 受讀解驗之 可一年所." (司馬遷, 史記列傳下[漢文大系七], 東京, 富山房, 1984, 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 pp. 11-14.)

23) "脈法曰 脈來數疾去難而不一者 病主在心"
"脈法曰 熱病陰陽交者死"
"脈法曰 沈之而大堅 浮之而大緊者 病主在腎"
"法曰 後三日而當狂 妄起行 欲走 後五日死"
"脈法曰 不平不鼓 形弊"
"迥風者 飮食下嗌而輒出不留 法曰 五日死"
"脈法曰 病重而脈順淸者曰內關"
"診脈法曰 病養喜陰處者順死 養喜陽處者逆死"
"論曰 中熱不溲者 不可服五石"
"扁鵲曰 陰石以治陰病 陽石以治陽病"
"論曰 陽疾處內 陰形應外者 不可悍藥及鑱石"
"診法曰 二陰應外 一陽接內者 不可以剛藥"
"其脈法奇咳言曰 藏氣相反者死 … 法曰 三歲死也"
"脈法曰 年二十脈氣當趨 年三十當疾步 年四十當安坐 年五十當安臥 年六十已上氣當大重"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p. 701-705.)

24) "歧伯對曰 病名陰陽交 交者死也."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p. 123.)

25) "陰陽交者死."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p. 237.)

그러므로 『脈書』는 질병의 診斷과 治療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학서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淳于意의 『脈書』는 뒤에 기술한 馬王堆漢墓의 『脈法』 및 張家山漢墓에서 발굴된 『脈書』와 동일서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淳于意의 『五色診』은 望診의 내용이 주를 이룬 의학서적으로 생각되는데, 『素問·玉版論要』에서 언급되어 나오는 『五色』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아니었나 추측이 될 뿐이다.

3. 近現代에 발견된 醫學書籍

① 馬王堆漢墓醫書[27]

1972년 초부터 1974년 초까지 長沙 동쪽 근교의 馬王堆에서 모두 3개의 前漢古墓가 발굴되었다. 2호 漢墓는 長沙國 丞相 軑侯利蒼의 묘로, 1호 漢墓는 利蒼의 妻인 辛追의 묘로, 3호 漢墓는 利蒼의 아들 묘로 밝혀졌다. 2호 漢墓의 주인인 利蒼은 高后 2년(B.C 186)에 매장되었고, 3호 漢墓는 漢文帝 前元 12년(B.C 168)에 매장되었으며, 1호 漢墓는 2호와 3호의 매장시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호 漢墓에서는 상당량의 帛書·竹簡·木牘이 발견되었는데 哲學類·歷史類·醫學類 문헌들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자료는 前漢以前, 주로 戰國時代의 자료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 가운데 醫書는 帛書가 10종이며 竹簡과 木牘이 4종으로 모두 14종이 된다.

帛書 10종 - 『足臂十一脈灸經』『陰陽十一脈灸經[28]』『五十二病方』『導引圖』『却穀食氣』『脈法』『陰陽脈死候』『養生方』『雜療方』『胎産書』

竹簡 3종 - 『十問』『合陰陽』『天下至道談』

木牘 1종 - 『雜禁方』

이러한 醫書들은 주로 隸書體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經脈과 鍼灸, 임상각과(내과·외과·부인과·소아과·오관과 등), 약물과 처방, 氣功導引, 養生保健 등에 걸쳐있어 前漢以前의 의학적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는 경락학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靈樞·經脈篇』과 비교해 보면, 脈은 있으나 穴은 없고, 五行과의 연관성도 없으며,

---

26) 馬王堆漢墓의 『脈法』의 문장은 다음 2종의 책을 참조할 것. (周一謀著, 金南一·印昌植譯,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山田慶兒,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研究[譯注篇],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5.)

27) 本稿에서는 간단히 그 대략만 살펴보고자 한다.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醫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周一謀의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을 참조할 것. (金南一 印昌植譯,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28) 『陰陽十一脈灸經』은 甲本과 乙本의 2종이 출토되었으나 같은 종류이므로 1종으로 계산함.

12經脈과 달리 手厥陰經이 빠진 11經脈만 기재하고 있고, 經脈이 藏府에 연결되는 개념도 없으며, 四肢와 內臟이 經脈을 통해 連繫되어 있지 않다.

즉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은 內經보다는 훨씬 朝野하고 原始的이라고 할 수 있어 『靈樞·經脈篇』 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靈樞·經脈篇』은 이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계승·발전하여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靈樞·經脈篇』은 적어도 B.C 168년 이후에 편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五十二病方』은 52종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기술된 책으로 馬王堆漢墓의 의서 가운데 가장 많은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처방수가 283종, 약물은 247종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神農本草經』에도 없는 약물들을 수록해 놓고 있다. 따라서 本書는 前漢以前의 方劑·藥物學的 정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 된다.

『導引圖』는 중국의학사상 가장 오래된 醫療體操圖라고 할 수 있다. 모두 44개의 성별과 연령이 다른 彩色圖를 수록해 놓고 있는데, 약 20개 정도는 훼손된 상태이거나 제목만 남아있고 아예 그림이 없이 발견되었다.

『却穀食氣』는 제목 그대로 '곡식을 먹지 않고 天氣를 흡입하는 養生氣功術'로 주로 食氣吐納術에 대해 논하고 있는 氣功관련 문헌이다. 즉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 소화기에 부담을 줄이고 內臟을 청결히 하면서 食氣吐納을 통해 체내의 축적된 탁한 기운을 없애고 자연계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 것이다. 本書에서는 하루의 아침·낮·저녁·밤과 달의 朔·望·晦 및 四時의 春·夏·秋·冬에 따른 食氣吐納法을 수록하고 있는데 『導引圖』와 함께 가장 오래된 氣功관련 문헌으로 볼 수 있다.

『脈法』은 脈學을 전수받는 학생이 받아 적은 최초의 의학교재로 추정된다. 발견당시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외하고 상당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 볼 수 없었으나 張家山漢墓에서 출토된 『脈書』를 통해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판독할 수 있게 되었다. 本書는 脈診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灸法과 砭法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脈'은 전술한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 나오는 11脈을 의미하는 것으로 11脈에 병이 들었을 경우 뜸과 침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상관관계를 주로 논하고 있다.

『陰陽脈死候』는 최초의 診斷學書라 할 수 있는데, 주로 死亡의 徵候를 감정하는 것에 관해 논술하고 있다. 즉 三陽脈은 屬天氣·主外·主殺하여 三陽病은 일반적으로 危重한 것이 아니고, 三陰脈은 屬地氣·主內·主殺하여 三陰病은 내부장기가 썩어들어가는 死證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의 三陰三陽은 內經의 12經脈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11맥 가운데 6개의 足脈에 한정해서 채택된 개념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三陽病은 가벼운 병이고, 三陰病은 위중한 병이라는 인식은 『傷寒雜病論』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일부에서 『傷寒雜病論』이

『素問·熱論』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그리고 『陰陽脈死候』를 祖本으로 하여 나온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養生方』은 약 절반 가까이 훼손된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馬王堆醫書 가운데 『五十二病方』 다음으로 많은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五十二病方』이 주로 각과 질병에 대한 치료방제를 수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養生方』은 養生保健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된 약물도 차이가 있다.

『雜療方』은 『五十二病方』과 『養生方』 다음으로 많은 처방을 수록하고 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胎胞를 매장하는 법, 祝由 처방, 뱀이나 벌레에 물린 것에 대한 처방 등을 빼고 대부분이 성기능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수를 차지한다.

『胎産書』는 역사상 발견된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서적이 된다. 本書에는 처방 10여수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임신보양 처방이고 그 외에 불임증 처방, 태아성별을 조절하는 처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후대에 나타나는 徐之才의 '逐月養胎法'과 巢元方의 '十月養胎法'은 『胎産書』의 내용이 繼承·發展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竹簡書 가운데 『雜禁方』은 주로 祝由方에 대한 것을 수록하고 있고, 그 밖의 『十問』『合陰陽』『天下至道談』은 주로 房中術 및 관련한 養生方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天下至道談』에는 "七損八益"을 언급하고 있는데, "七損八益"을 성생활에 있어서 인체에 해로운 7가지와 유익한 8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② 江陵張家山漢墓醫書

1983년부터 1984년 초까지 湖北省 江陵의 張家山에서 모두 3개의 前漢墓葬이 발굴되었다. 이들 漢墓의 매장시기는 漢初의 呂后와 文帝初年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 비교적 보관상태가 양호한 상당량의 竹簡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竹簡은 法律·歷史·曆法·算數·醫學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醫學과 관련된 자료는 『脈書』와 『引書』의 2종이 된다. 따라서 本書는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醫書를 계승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前漢以前의 의학적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 된다. 특히 『脈書』는 馬王堆漢墓의 『脈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脈法』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판독할 수 있게 되었다.

③ 武威漢墓醫書

1972에 甘肅省 武威縣에서 後漢初의 墓葬이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 모두 92枚의 의학관련 簡牘이 발견되었다. 후일 이것을 『治百病方』이라 지칭하게 되었는데, 그 중 약 36首의 처방과 100여종의 藥名이 확인되며 그 밖의 鍼灸療法 등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本書는 『靈樞』보다 더 구체적으로 鍼灸療法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고 있어서 본 簡牘이 『靈樞』보다 나중에 나온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馬王堆漢墓의 『五十二病方』보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五十二病方』 보다 나중에 成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傷寒雜病論』에 비하여 소박하고 辨證論治의 틀이 아직 반

영되지 않아 『五十二病方』에서 『傷寒雜病論』에 이르는 과도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적으로 前漢時代의 의학적 수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④安徽 阜陽 雙古堆 汝陰侯墓

1977년 安徽省 阜陽 교외에서 雙古堆 汝陰侯墓가 발굴되었다. 매장시기는 漢文帝 15년(B.C 165)으로 馬王堆漢墓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본 漢墓에서는 簡牘 이외에 점치는 도구인 '六壬栻盤'과 '太乙九宮占盤'이 출토되었는데, 기재된 文字나 배열, 九宮의 名稱과 節氣日數가 『靈樞·衛氣行篇』과『靈樞·九宮八風篇』의 내용과 일치한다. 簡牘은 모두 133條의 분량으로 원래 정식 명칭이 없다가 본문의 구절을 근거로 『萬物』로 명명했다. 『萬物』은 成書時期가 『山海經』보다 조금 늦고 馬王堆醫書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萬物』은 『山海經』에서 『五十二病方』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 단계의 의학서적이라 할 수 있다.

Ⅲ. 『黃帝內經』에 나타난 醫學書籍

1. 揆度

『揆度』이 언급되어 나오는 부분은 素問의 「玉版論要篇 第十五」「玉機眞藏論篇 第十九」「經脈別論篇 第二十一」「病能論篇 第四十六」「疏五過論篇 第七十七」 등이다.

「玉版論要」에는 "'揆度'은 병의 淺深을 헤아리는 것이고, '奇恒'은 기이한 병의 診斷法을 논한 것이다."[29]라고 하였다.

「玉機眞藏論」에는 黃帝가 말하는 부분에 "나는 脈의 大要를 터득했습니다. 천하의 지극한 이치는 '五色'·'脈變'·'揆度'·'奇恒'에 있으니 그 道는 한결같습니다."[30]라고 하였다.

「經脈別論」에서는 "水飮이 胃로 들어가면 精微로운 기운이 넘쳐흐르게 하여 위로 脾에 수송하고, 脾氣가 精微로운 기운을 散布하게 하면 위로 올라가 肺에 집결했다가 물길을 조절하면서 통하게 하여 아래로 방광에 수송하니, 水穀의 精微로운 기운이 사방에 퍼져 五臟經脈의 기운과 함께 순행하되, 사계절과 五臟의 음양변화 및 '揆度' 등과 합치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규율로 삼는다."[31]라고 하고 있다.

「病能論」에서는 "揆度은 切診하여 병의 상태와 病所를 헤아리는 것이다. … 이른

29) "黃帝問曰 余聞揆度·奇恒 所指不同 用之柰何? 岐伯對曰 揆度者 度病之淺深也 奇恒者言奇病也. 請言道之至數 五色·脈變·揆度·奇恒 道在於一. … 陰陽反他 治在權衡相奪 奇恒事也 揆度事也."(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p. 52.)

30) "吾得脈之大要 天下至數 五色·脈變 揆度·奇恒 道在於一."(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2.)

31) "飮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光.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 五藏陰陽 揆度以爲常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86.)

바 '揆'라 한 것은 바야흐로 切診하여 병의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니 切診하여 그 脈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 '度'은 그 병든 곳을 파악하되 사계절에 의거하여 이를 헤아리는 것이다."[32]라고 하였다.

「疏五過論」에는 "이러한 치법을 신중하게 지키면 경전의 뜻과 같아 서로 밝아질 것이니, '上經', '下經', '揆度', '陰陽', '奇恒'의 다섯 가지에 부합시켜 明堂의 색으로 판정하되 (傳變하는 病證과 循行하는 經脈의) 終始를 자세히 살피면 거리낌없이 시행할 수 있다."[33]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內經의 『揆度』에 대한 언급에 대해 역대의 연구자들은 단순히 診斷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별도의 書籍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그 견해가 나눠진다. 혹은 그 해석을 한가지로만 단정 짓지 않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기도 한다[34]. 그러한 이유는 '揆度'이 書名이나 篇名이거나, 아니면 그도 아닌 단순한 診斷法의 의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揆度』은 書名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揆度'이란 말이 書名이 아닐 경우, 단순히 '헤아림'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명사에 해당되는 '헤아리는 것'에 '진단법'의 의미를 내포시켜 여러 차례 고유명사화하여 지칭·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疏五過論」에서는 書名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上經』 및 『下經』 등과 같이 竝列·言及하고 있기 때문에 '揆度'은 書名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전술한 『史記列傳』의 기록 가운데 倉公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陽慶에게 전수받았던 醫學書籍의 목록으로 같은 『揆度』이 언급되고 있어서 書名이 분명한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揆度』은 診脈을 통한 診斷法을 수록하고 있는 고대의 醫學書籍으로 적어도 漢代初期까지는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奇恒

『奇恒』은 素問의 「玉版論要篇 第十五」「玉機眞藏論篇 第十九」「病能論篇 第四十六」「疏五過論篇 第七十七」 등에 전술한 『揆度』과 함께 언급되어 나타난다.

「玉版論要」에는 "黃帝가 묻기를 '내가 듣건대 揆度과 奇恒은 가르키는 바가 같지 않다고 하니 어떻게 구별하여 응용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岐伯이 대답하기를 '揆度은 (일반적) 질병의 淺深을 헤아리는 것이며, 奇恒은 (특수하고) 奇異한 疾病을 말한

32) "揆度者 切度之也…所謂揆者 方切求之也 言切求其脈理也 度者 得其病處 以四時度之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4.)

33)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 下經·揆度·陰陽 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4.)

34) "揆度은 증상이 陰陽으로 드러나는 經絡의 병이나 그 陰陽의 변화를 헤아려서 診斷하는 방법을 뜻한다. 또는 그 診斷법을 기록해 놓은 篇名이나 書名으로도 볼 수 있다."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 232.)

것입니다.' …(기이한 질병의 診斷法인) 奇恒의 방법도 手太陰經의 寸口脈에서 시작합니다."[35]라고 기술하고 있다.

「玉機眞藏論」에도 黃帝가 말하는 부분에 "나는 脈의 大要를 터득했습니다. 천하의 지극한 이치는 五色·脈變·揆度·奇恒에 있으니 그 道는 한결같습니다."라고 하였다[36].

「病能論」에서는 사람이 반듯하게 누울 수 없는 경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肺는 五臟의 덮개이니 肺氣가 왕성하면 脈形이 크고 脈形이 크면 반듯하게 누울 수 없는데, 論述은 '奇恒'과 '陰陽' 가운데 있다. … '奇恒'은 기이한 질병을 논술한 것이다. 이른바 奇病이라는 것은 기이한 병으로 사계절에 따라 (자신을 勝하는 계절에) 죽지 않는 것이고, 恒病이란 것은 사계절에 따라 (자신을 勝하는 계절에) 죽는 것이다."[37]라고 하였다.

「疏五過論」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上經』『下經』『揆度』『陰陽』『奇恒』의 다섯 가지에 부합시켜 明堂의 색으로 판정하되 (傳變하는 病證과 循行하는 經脈의) 終始를 자세히 살피면 거리낌 없이 시행 할 수 있다."[38]라고 하고 있다.

『奇恒』도 『揆度』과 마찬가지로 역대의 注釋家들에게 단순히 診斷法으로만 해석되는 경우와 별도의 書名이나 篇名으로 해석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혹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기도 한다[39].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가정 중에 『奇恒』도 『揆度』과 동일하게 書名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전술한 바의 『揆度』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함께 거론되는 『奇恒』도 書名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 질병의 진단법인 『揆度』에 대비하여 『奇恒』은 '기이하고 특수한 질병의 진단법'을 수록한 書籍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부언하자면 전술한 것처럼 『史記列傳』에서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陽慶에게 전수받았던 의학서적의 하나로 비슷한 제목의 『奇咳術』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奇咳術』이 內經에 나타나는 『奇恒』과 동일한 서적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문제이

35) "黃帝問曰 余聞揆度·奇恒 所指不同 用之柰何? 岐伯對曰 揆度者 度病之淺深也 奇恒者 言奇病也. 請言道之至數 五色·脈變·揆度·奇恒 道在於一. … 陰陽反他 治在權衡相奪 奇恒事也 揆度事也. … 行奇恒之法 以太陰始"(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2.)

36) "吾得脈之大要 天下至數 五色·脈變·揆度·奇恒 道在於一."(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2.)

37) "帝曰 人之不得偃臥者 何也? 岐伯曰 肺者藏之蓋也 肺氣盛則脈大 脈大則不得偃臥 論在奇恒·陰陽中. … 奇恒者 言奇病也. 所謂奇者 使奇病 不得以四時死也 恒者 得以四時死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p. 173-174.)

38) "上經·下經 揆度·陰陽·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洪元植의 같은 책, p. 314.)

39) "奇恒은 증상의 陰陽變化가 잘 드러나지 않는 神이나 五藏의 질병 또는 이러한 질병을 診斷하는 방법을 뜻한다. 그 診斷법을 기록해 놓은 篇名이나 書名으로도 볼 수 있다."(전술한 朴贊國의 책, 같은 쪽.)

다. 또 하나 素問의 편중에도 「奇病論」이 있는데, 이 「奇病論」이 『奇恒』을 저본으로 하여 편성된 것이거나 또는 「奇病論」에 『奇恒』의 문장이 일정부분 散入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淳于意의 『奇咳術』이나 內經에 언급된 『奇恒』은 현재 傳承된 것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고, 단지 그 가능성만을 생각해볼 뿐이다.

3. 五色

『五色』에 대한 언급은 전술한 素問의 「玉版論要篇 第十五」와 「玉機眞藏論篇 第十九」에 『揆度』, 『奇恒』, 『脈變』 등과 함께 나온다. 이 외에 언급되는 內經 중의 '五色'은 '靑·赤·黃·白·黑'의 다섯 가지 색깔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었다.

「玉版論要」에는 "청컨대 道의 지극한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五色'과 '脈變'과 '揆度'과 '奇恒'은 그 이치가 한가지입니다."[40]라고 하였으며, 「玉機眞藏論」에는 黃帝가 말하는 부분에 "나는 脈의 大要를 터득했습니다. 천하의 지극한 이치는 五色·脈變·揆度·奇恒에 있으니 그 道는 한결같습니다."[41]라고 하고 있다.

즉, 『揆度』, 『奇恒』, 『脈變』 등과 동급의 명칭으로 '五色'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五色'은 단순히 다섯 가지 색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전술한 것처럼 『揆度』과 『奇恒』이 書名이라면, '五色'도 마찬가지 이유로 書籍의 이름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史記列傳』에도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陽慶에게 전수받았던 의학서적의 하나로 비슷한 제목의 『五色診』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淳于意의 『五色診』과 「玉版論要」의 『五色』은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아울러 靈樞의 편중에도 똑같은 제목의 「五色」이 있는데, 이것도 앞선 『五色診』과 『五色』을 저본으로 편성되어 靈樞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본 「玉版論要」와 「玉機眞藏論」의 『五色』이 淳于意의 『五色診』 및 靈樞의 「五色」과 동일한 내용의 같은 책인지는 결론지을 수 없지만,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診斷과 관련한, 특히 望診과 관련한 醫學書籍으로 생각되며, 『五色』은 漢代初期에 이미 존재하여 內經에 언급·인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鍼經

『鍼經』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八正神明論篇 第二十六」과 靈樞의 「九鍼十二原第一」에 나타난다.

「八正神明論」에서는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좋습니다! 그 星辰을 法으로 삼는 것

40) "岐伯對曰 … 請言道之至數 五色·脈變·揆度 奇恒 道在於一."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2.)

41) "吾得脈之大要 天下至數 五色·脈變·揆度·奇恒 道在於一."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2.)

은 내가 들었으니 지나간 옛 성인들의 學術과 經驗을 法으로 삼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하길 지나간 옛 성인들의 學術과 經驗을 法으로 삼는 것은 먼저 鍼經을 알아야 합니다."[42]라고 하면서 '鍼經'을 언급하고 있다.

「九鍼十二原」의 첫 章에는 黃帝가 岐伯에게 백성들에게 毒藥과 砭石을 사용하지 않고 微鍼으로 병을 제거하기 위해 '鍼經'을 세우고자 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43]. 이 부분의 注釋에 張介賓은 "『靈樞』가 바로 『鍼經』이라 명명된 뜻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44]라고 하였고, 黃元御는 "『鍼經』은 바로 『靈樞經』이다. 황제께서 毒藥과 砭石을 사용하지 않고 微鍼으로 백성들의 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鍼經』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므로 岐伯에게 자문하여 『靈樞』를 만들었다."[45]라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唐代 王氷이 素問에 注釋을 달면서 역사상 '靈樞'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靈樞』가 편성되는 최초의 始點에는 단순히 『鍼經』으로 불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序』에도 『素問』과 함께 『靈樞』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九卷』이 언급되고 있지만, 內經에는 『九卷』이란 명칭이 나타나질 않는다. 따라서 현존하는 『靈樞』의 원래의 명칭은 『鍼經』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비교적 일찍 『九卷』으로도 竝稱되었으며, 이후 道家의 영향을 받아 『靈樞』, 『九靈』, 『九虛』 등의 명칭이 아울러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內經에 언급되는 '鍼經'은 별도의 문헌이나 內經의 다른 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靈樞』를 의미하는 말로 생각된다.

5. 鍼論

『鍼論』에 관한 언급은 靈樞의 「官能 第七十三」에 2번 거론되어 나온다. 즉 本篇의 전반부에 黃帝가 岐伯에게 들었던 九鍼에 대해 스스로 계통적 이론으로 정리·논술을 하고 있는데, 이 논술을 마치면서 『鍼論』을 끝낸다고 말하고 있다[46]. 이후의 같은 篇에서 雷公이 黃帝에게 "『鍼論』에서 말하길 '적임자를 만나면 곧 전해주고 적

42) "帝曰 善. 其法星辰者 余聞之矣 願聞法往古者. 岐伯曰 法往古者 先知鍼經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00.)

43) "黃帝問於岐伯曰 余子萬民 養百姓而收租稅 余哀其不給而屬有疾病. 余欲勿使被毒藥 無用砭石 欲以微鍼通其經脈 調其血氣 營其逆順出入之會 令可傳於後世 必明爲之法 令終而不滅 久而不絶 易用難忘 爲之經紀 異其章 別其表裏 爲之終始 令各有形 先立鍼經 願聞其情."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11.)

44) "靈樞卽名鍼經 義本諸此"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418.)

45) "鍼經卽靈樞經. 帝欲不用毒藥砭石 而以微鍼除百姓之病 先立鍼經 故諮岐伯而作靈樞" (黃元御, 靈樞懸解[明淸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69.)

46) "…不知所苦 兩蹻之下 男陰女陽 良工所禁 鍼論畢矣."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05.)

임자가 아니면 말해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해줄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47]라고 하면서 『鍼論』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적임자에게만 전해주라(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는 『鍼論』의 문구는 본편의 앞부분에 黃帝가 소위 『鍼論』을 논술하면서 먼저 그대로 언급하고 있고[48], 또 黃帝가 九鍼에 대한 논술을 마치면서 스스로 『鍼論』을 끝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官能」의 『鍼論』은 별도의 의학서적이나 문헌이 아니라 본편 앞부분-雷公이 黃帝에게 묻기 이전-에서 黃帝가 침을 활용하는 전체적인 개요를 논하고 있는 부분(鍼論)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6. 九鍼

『九鍼』에 대한 언급은 素問과 靈樞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九鍼'은 鑱·圓·鍉·鋒·鈹·圓利·毫·長·大鍼의 아홉 가지 鍼의 종류를 말하지만,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난다. 素問의 「三部九候論篇 第二十」과 靈樞의 「行鍼 第六十七」「官能 第七十三」「九鍼論 第七十八」 등에서는 黃帝가 岐伯에게 "나는 그대에게 九鍼에 대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였는데[49], 여기에 '九鍼'은 일반적인 의미의 鍼의 9種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책을 언급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八正神明論篇 第二十六」에서는 "… 三部九候를 근원으로 삼았으니 九鍼의 논술에 반드시 있지 않는 것이다."[50]라고 하여 책의 의미가 강한 '九鍼'이 언급된다. 또한 「離合眞邪論篇 第二十七」에는 보다 분명하게 책의 의미로 '九鍼'을 언급하고 있는데, 本篇에서는 黃帝가 하는 말 가운데 "나는 九鍼이 9편이라 들었으나 그대가 이에 의거하여 아홉으로 나누어 81편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미 그 뜻을 다 통달했다."[51]라고 하고 있다.

---

47) "雷公問於黃帝曰 鍼論曰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 何以知其可傳?"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06.)

48) "黃帝問于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 衆多矣 不可勝數 余推而論之 以爲一紀 余司誦之 子聽其理 非則語余 請正其道 令可久傳 後世無患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05.)

49) "黃帝問曰 余聞九鍼於夫子 衆多博大 不可勝數." - 「三部九候論篇 第二十」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 而行之於百姓 百姓之血氣 各不同形" - 「行鍼 第六十七」
"黃帝問于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 衆多矣 不可勝數 余推而論之 以爲一紀. … 知官九鍼刺道畢
矣." - 「官能 第七十三」
"黃帝曰 余聞九鍼於夫子 衆多博大矣!" - 「九鍼論 第七十八」

50) "…三部九候爲之原 九鍼之論 不必存也."

51) "黃帝問曰 余聞九鍼九篇 夫子乃因而九之 九九八十一篇 余盡通其意矣." 「離合眞邪論篇 第二十七」

이러한 책의 의미로서의 『九鍼』에 대한 언급은 다른 편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즉, 靈樞의 「口問 第二十八」에 黃帝가 岐伯에게 "내가 이미 듣건대 九鍼의 經典은 陰陽의 逆順과 六經을 논할 때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口傳을 듣고 싶다."[52]라고 하고 있으며, 또 「外揣 第四十五」에서 黃帝가 "나는 九鍼의 9편을 들었고, 직접 그 법도를 받아들여 그 뜻을 거의 터득했다. 저 九鍼에 대한 원리는 一篇에서 시작해서 九篇에서 끝났으나 아직 그 중요한 도리를 터득하지 못했다."[53]라고 하고 있다. 특히 「禁服 第四十八」에서는 雷公이 黃帝에게 하는 말 가운데 "소인은 스승으로부터 배워 九鍼의 60편에 통달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이를 준수·복습하여 앞부분은 끈이 떨어져 나갔고 뒷부분은 竹簡에 때가 묻어 더러워 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우면서 방치해 놓지 않아도 아직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54]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內經以前의 古代에 『九鍼』이라는 책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언급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보건대 이러한 『九鍼』은 역사상 刺鍼療法을 가장 먼저 수록·정리하고 있는 책이며, 이 『九鍼』을 토대로 『靈樞』가 編成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7. 熱論

'熱論'에 관한 언급은 素問의 「評熱病論篇 第三十三」에 나온다. 黃帝가 邪氣의 침습으로 땀을 흘리는 경우를 묻는 것에 대해 岐伯이 "또한 저 '熱論'에서 '땀을 흘렸으나 맥이 여전히 躁動하면서 왕성한 경우에는 죽는다.'"[55]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素問에도 「熱論」이 있으나 「熱論」에는 이와 같은 문장이 수록되어 나오질 않는다. 다만 靈樞의 「熱病」에 "熱病에 이미 땀을 흘렸으나 脈이 오히려 躁盛한 것은 陰脈이 극에 달한 것이니 죽게 되고, 땀을 흘리고 난 후에 脈이 안정된 경우는 산다."[56]라고 하여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評熱病論篇」에 언급된 '熱論'은 靈樞의 「熱病」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王氷은 "'熱論'은 上古의 '熱論'을 말한다."[57]라고 하여 「評熱病論篇」에 언급되는

52) "黃帝閑居 辟左右而問于岐伯曰 余已聞九鍼之經 論陰陽逆順 六經已畢 願得口問."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58.)

53) "黃帝曰 余聞九鍼九篇 余親授其調 頗得其意. 夫九鍼者 始于一而終於九 然未得其要道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09.)

54) "雷公問於黃帝曰 細子得受業 通於九鍼六十篇 旦暮勤服之 近者編絶 久者簡垢 然尙諷誦弗置 未盡解於意矣."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21.)

55) "且夫熱論曰 汗出而脈尙躁盛者死."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23.)

56) "熱病已得汗而脈尙躁盛 此陰脈之極也 死 其得汗而脈靜者 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39.)

57) "熱論謂上古熱論也." (王氷, 黃帝內經素問注[四庫全書本],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 733-109.)

'熱論'이 이전의 고대문헌인 『熱論』이라 말했으며, 이 외에 張介賓이나 高世栻 등은 모두 이 부분의 '熱論'이 靈樞의 「熱病篇」이 된다고 하였다[58]. 王氷은 단정적으로 『熱論』이라는 고대문헌의 실재를 말했으나 '上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靈樞의 「熱病篇」을 아직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주석을 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內經 이전의 고대에 『熱論』이란 책이 실재했었고 이것의 내용이 靈樞의 「熱病」으로 편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8. 刺法

『刺法』이 언급되어 나오는 곳은 素問의 「評熱病論篇■■■ 第三十三」「腹中論篇 第四十」「奇病論篇 第四十七」「調經論篇 第六十二」와 靈樞의 「官鍼 第七」「逆順 第五十五」 등이다.

「評熱病論篇 第三十三」에는 風水病을 논하는 부분에 그 내용이 『刺法』 중에 있다고 하였다[59]. 그러나 素問의 「刺法論篇 第七十二」에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素問의 「水熱穴論篇 第六十一」에 足少陰經脈이 腎을 주관하고 腎이 水를 주관하는 까닭과 '風水病', 즉 腎臟에 水氣가 모여 병이 생기는 원인과 병리기전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60]. 張介賓도 『類經·疾病類』에서 "논하는 것이 '刺法' 중에 있다는 것은 곧 「水熱穴論」이다."[61]라고 하여 「評熱病論篇」에서 언급한 '刺法'은 「水熱血論篇」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評熱病論篇」에서 언급되고 있는 '刺法'은 「水熱血論篇」을 誤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刺法論篇」은 「本病論篇」과 함께 소위 '素問遺篇' 중의 하나로 唐代 王氷이 素問에 주석을 달 때 이미 원본이 佚失되어 있었다. 王氷은 篇題만 기록하고 闕文상태로 놔두었는데, 이후 北宋代 新校正 作業時에 林億·高保衡 등이 「刺法論篇」과 「本病論篇」의 經文을 발견하고 새롭게 編入하였다. 그러나 編入된 '素問遺篇'은 원래 素問

58) "熱論指靈樞熱病篇也"(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337.)

59) "岐伯曰 至必少氣時熱 時熱從胸背上至頭 汗出手熱 口乾苦渴 小便黃 目下腫 腹中鳴 身重難以行 月事不來 煩而不能食 不能正偃 正偃則咳 病名曰風水 論在刺法中."(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24.)

60) "黃帝問曰 少陰何以主腎 腎何以主水? 岐伯對曰 腎者至陰也. 至陰者 盛水也. 肺者太陰也 少陰者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 帝曰 腎何以能聚水而生病? 岐伯曰 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上下溢於皮膚 故爲胕腫. 胕腫者 聚水而生病也. 帝曰 諸水皆生於腎乎? 岐伯曰 腎者牝藏也 地氣上者 屬於腎 而生水液也. 故曰至陰. 勇而勞甚 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藏府 外不得越於皮膚 客於玄府 行於皮裏 傳爲胕腫 本之於腎 名曰風水. 所謂玄府者 汗空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13.)

61) "腎主水 風在腎經 卽名風水 論在刺法中 卽水熱穴論也"(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323.)

에 들어있지 않았던 運氣學說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문장의 격조가 떨어지고 천박하여 新校正時부터 그 眞僞를 의심하였으며, 이후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 僞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62]. 따라서 현존하는 「刺法論篇」은 王氷 이후 新校正 이전에 僞作되어서 素問에 編入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刺法論篇」 중에 '風水病'에 관한 논술이 없다고 해서 張介賓의 주석과 같이 「評熱病論篇」에서 언급한 '刺法'을 곧바로 「水熱血論篇」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佚失되어 본래의 經文內容을 상고할 수 없지만 원래의 「刺法論篇」에 '風水病'에 관한 논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腹中論篇 第四十」에는 伏梁證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그 논하는 바가 『刺法』 중에 있다고 하였다[63].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刺法論篇」에는 나오질 않는다. 다만 靈樞의 「經筋 第十三」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64], 章楠도 『靈素節注類篇』에서 "「刺法論」을 살펴보건대 伏梁證이 나오질 않는데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靈樞·經筋篇』에 '手少陰의 經筋에 병이 들어 속에서 經筋이 緊急해지면 心에 伏梁證을 일으키고 그 伏梁證이 생겨 피고름을 뱉어 낼 경우에는 죽거나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大同하다."[65]라고 하고 있다. 즉 「腹中論」에 기술한 「刺法論」 가운데는 伏梁證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다만 靈樞의 「經筋篇」에 유사한 내용의 언급이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술한 바와 같이 「刺法論」이 원래의 내용과 다른 僞作이 新校正時에 編入되어 전승된 것이므로 佚失되기 이전 본래의 「刺法論」 중에 伏梁證에 관한 논술이 들어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奇病論篇 第四十七」에는 黃帝가 婦人이 임신 9개월에 말을 하지 못하는 병증에 대해 묻자, 기백이 답하길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10개월에 출산을 하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刺法'에서 말하길 '精氣가 부족한 것을 덜어내지 말고 邪氣가 有餘한 것에 보태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고질병을 형성하고 난 후에 조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66]라고 하였다. 「奇病論篇」에서는 『刺法』의 문장까지 거론하고 있는

62) 『黃帝內經概論』을 참조할 것.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p. 43.)

63) "岐伯曰 此下則因陰 必下膿血 上則迫胃脘 生鬲俠胃脘內癰 此久病也 難治. 居臍上爲逆 居臍下爲從 勿動亟奪 論在刺法中."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49.)

64) "手少陰之筋 起於小指之內側 結於銳骨 上結肘內廉 上入腋 交太陰 挾乳裏 結於胸中 循臂 下繫於臍. 其病內急心承伏梁 下爲肘網. 其病當所過者 支轉筋 筋痛. 治在燔鍼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 其成伏梁唾血膿者 死不治."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04.)

65) "考刺法論幷無伏梁證 未知其故. 靈樞經筋篇曰 手少陰之筋 其病內急 心承伏梁. 其成伏梁 吐血膿者 死不治. 其義大同."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上], 서울, 醫聖堂, 2001, p. 838.)

66) "岐伯曰 無治也. 當十月復. 刺法曰 無損不足 益有餘 以成其疹 然後調之. 所謂無損不足者 身羸瘦 無用鑱石也 無益其有餘者 腹中有形而泄之 泄之則精出而病獨擅中 故曰疹成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6.)

데, 현존하는 「刺法論篇」에는 이러한 문장이 나오질 않는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亡失되기 이전의 원래의 「刺法論篇」에는 「奇病論篇」의 언급대로 이와 같은 문장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調經論篇 第六十二」에는 黃帝가 岐伯에게 "나는 '刺法'에서 '邪氣가 有餘하면 이를 瀉하고 精氣가 부족하면 이를 補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엇이 有餘한 것이라 하고 무엇을 부족한 것이라 하는가?"[67]라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 「調經論篇」에서도 '刺法'의 문장을 인용·언급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刺法論篇」에는 이러한 내용의 문장이 나오질 않는다. 다만 素問의 「瘧論篇 第三十五」에 "經에 말하길 '邪氣가 有餘하면 이를 瀉하고 精氣가 부족하면 이를 補한다.'"[68]라고 하였고, 靈樞의 「根結 第五」에도 똑같은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69] 이 부분 「瘧論篇」에서 언급한 '經'은 「刺法論篇」을 말한 것으로 생각되며, 靈樞의 「根結」도 마찬가지로 「刺法論篇」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靈樞의 「官鍼 第七」에는 "그러므로 '刺法'에서 말하길 '처음에 얕게 자침하여 邪氣를 몰아내 血氣를 오게 하고, 나중에 깊이 자침하여 陰分의 邪氣를 몰아내고, 가장 마지막에 매우 깊이 자침하여 穀氣를 내려가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70]라고 하여 '刺法'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刺法'의 문장내용은 「刺法論篇」에 나오질 않고 다만 비슷한 내용이 靈樞의 「終始 第九」에 나타난다[71].

「逆順 第五十五」에도 '刺法'의 문장을 인용·언급하고 있는데, 伯高가 말하길 "'兵法'에서 '확대되는 기세를 맞이하지 말고 위풍당당한 진용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刺法'에서는 '열이 펄펄 끓는 경우는 자침하지 말고, 땀이 줄줄 흐를 경우도 자침하지 말며, 脈이 혼탁하며 문란할 경우에도 자침하지 말아야 하며, 病과 脈象이 相逆할 경우에도 자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72]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물론 「逆順」에 언급되는 내용은 현존하는 「刺法論篇」에 나오질 않는다. 다만 素問의 「瘧論篇 第三十五」에 岐伯이 말하는 내용 중에 순서만 약간 달리하여 똑같은 내용의 문장이 언급하고 있다[73]. 그러므로 이 부분 「瘧論篇」에서 말하고 있는 '經'은 또한

67) "黃帝問曰 余聞刺法言 有餘寫之 不足補之 何謂有餘 何謂不足?"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16.)

68) "帝曰 夫經言有餘者寫之 不足者補之"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1.)

69) "故曰 有餘者寫之 不足者補之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51.)

70) "故刺法曰 始刺淺之 以逐邪氣 而來血氣 後刺深之 以致陰氣之邪 最後刺極深之 以下穀氣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63.)

71) "故一刺則陽邪出 再刺則陰邪出 三刺則穀氣至 穀氣至而止."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72.)

72) "伯高曰 兵法曰 無迎逢逢之氣 無擊堂堂之陣. 刺法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漉漉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44.)

「刺法論篇」이 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刺法論』은 素問의 「評熱病論篇」「腹中論篇」「奇病論篇」「調經論篇」과 靈樞의 「逆順」 등에 그 내용 및 문장 등이 인용·언급되고 있지만 현존하는 「刺法論篇」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전승된 「刺法論篇」이 王氷 이후에 僞作되어 新校正時에 編入되어서 원래의 「刺法論篇」과는 다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佚失되기 이전의 원래의 「刺法論篇」에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부언하자면 素問의 「評熱病論篇」「腹中論篇」「奇病論篇」「調經論篇」과 靈樞의 「官鍼」「逆順」 등, '刺法'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刺法論篇」이 이루어진 뒤에 編成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9. 上經

『上經』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病能論篇 第四十六」「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疏五過論篇 第七十七」「陰陽類論篇 第七十九」 등에 나타난다.

「病能論篇」에서는 "'上經'은 인체의 氣가 天氣와 통하는 것을 논술한 것이다."[74]라고 하였고, 「氣交變大論篇」에서는 岐伯이 하는 말 가운데 "'上經'에서 말하길 '무릇 道라는 것은 위로는 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며 가운데로는 人事를 아는 것이니 이로써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75]라고 하여 『上經』의 문장을 거론하고 있다. 「氣交變大論篇」에 인용되는 『上經』의 문장은 「著至教論篇 第七十五」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76], 이것은 「氣交變大論篇」이 소위 '運氣七篇' 중의 하나로 唐代 王氷이 補入한 것이라고 해도 內經 이전의 고대의학 서적의 내용이 일부분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반증이 된다고 생각된다.

「疏五過論」에는 "이러한 치법을 신중하게 지키면 경전의 뜻과 같아 서로 밝아질 것이니, '上經', '下經', '揆度', '陰陽', '奇恒'의 다섯 가지에 부합시켜 明堂의 색으로 판정하되 (傳變하는 病證과 循行하는 經脈의) 終始를 자세히 살피면 거리낌없이 시행할 수 있다."[77]라고 하여 『下經』, 『揆度』, 『陰陽』, 『奇恒』과 함께 『上經』을

73) "岐伯曰 經言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 故爲其病逆 未可治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1.)

74) "上經者 言氣之通天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4.)

75) "上經曰 夫道者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此之謂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48.)

76) "而道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以教衆庶 亦不疑殆. 醫道論篇 可傳後世 可以爲寶."(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9.)

77)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下經·揆度·陰陽·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洪元植의 같은 책, p. 314.)

언급하고 있다.

「陰陽類論篇」에는 黃帝가 經脈이 순행하는 경로를 볼 때 五臟이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臟器가 가장 귀중한가 묻자 雷公이 肝이 가장 귀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黃帝가 말하길 "그러나 上經·下經·陰陽·從容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대가 귀중하다고 한 것은 가장 낮은 것이다."[78]라고 하면서 『下經』, 『陰陽』, 『從容』 등의 서적과 함께 『上經』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上經』은 內經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의학서적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역대의 주석가들이 이런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 高世栻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즉, 『素問直解』에서 "「示從容論篇」에 이르기를 '청컨대 脈經의 上下篇을 진술하였다.'라고 하였는데 脈經은 의심컨대 靈樞經일 것이다. 여기에서 上經과 下經은 곧 脈經인 靈樞經의 上下經(上下篇)이 된다."[79]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이 부분 언급한 素問의 「示從容論篇 第七十六」에는 黃帝가 雷公에게 사소한 것까지 밝혀 완전무결하게 치료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방도를 묻자, 雷公이 "臣이 청하여 '脈經'의 上下篇을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차이를 구별하고 類推해도 여전히 완전무결하게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더 이상) 어떻게 충분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80]라고 대답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示從容論篇」에서는 雷公이 스스로 '脈經上下篇'을 진술(誦)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脈經上下篇'은 바로 靈樞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高世栻은 이러한 「示從容論篇」의 雷公의 말을 들어 脈經은 靈樞經이 되고, 上下經은 靈樞의 上下經(篇)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高世栻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上經'과 '下經'은 별도의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靈樞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氣交變大論篇」에서 '上經'의 문장으로 "道者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라는 문구를 인용·언급하고 있는데, 高世栻의 견해가 맞다면 靈樞에 이러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靈樞 전편을 통해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질 않는다. 둘째로 內經 이전에 이미 『上下經』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淳于意가 公乘陽慶으로부터 전수받은 의학서적 중에 『上下經』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內經 이전에 『上經』과 『下經』이 존재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下經

『下經』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逆調論篇 第三十四」「痿論篇 第四十四」「病能

78) "帝曰 却念上下經陰陽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8.)

79) "示從容論云 請誦脈經上下篇 脈經疑卽靈樞經. 此上經下經 卽脈經上下經也."

80) "雷公曰 臣請誦脈經上下篇 甚衆多矣. 別異比類, 猶未能以十全 又安足以明之."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1.)

論篇 第四十六」「疏五過論篇 第七十七」「陰陽類論篇 第七十九」 등에 나타난다.

「逆調論篇」에서는 黃帝가 사람이 氣가 上逆해서 누울 수 없게 되고 숨을 쉴 때 소리가 나는 까닭을 묻자 기백이 "'下經'에서 말하길 '胃가 편안하지 못하면 누워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81]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痿論篇」에서도 '下經'에 수록된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즉, "'下經'에서 '筋痿證은 성교하는 것(使內)에서 생긴다.'[82]라고 하였다. … '下經'에서 '肉痿證은 濕地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 '下經'에서 '骨痿證은 심한 더위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83]라고 언급하고 있다.

「病能論篇」에서는 『上經』, 『金匱』, 『揆度』, 『奇恒』 등을 거론하면서 "'下經'은 병의 변화를 논술한 것이다."[84]라고 언급하고 있다.

「疏五過論篇」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치법을 신중하게 지키면 경전의 뜻과 같아 서로 밝아질 것이니, '上經', '下經', '揆度', '陰陽', '奇恒'의 다섯 가지에 부합시켜 明堂의 색으로 판정하되 (傳變하는 病證과 循行하는 經脈의) 終始를 자세히 살피면 거리낌없이 시행 할 수 있다."[85]라고 하여 『下經』을 포함하여 『上經』, 『揆度』, 『陰陽』, 『奇恒』 등의 다섯 가지 서적을 나열하고 있다.

「陰陽類論篇」에는 앞서 '上經'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上經』, 『陰陽』, 『從容』 등의 서적과 함께 『下經』을 언급하고 있다[86].

또한 『史記列傳』에서는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陽慶으로부터 전수 받은 책 가운데 『上下經』이 언급되어 나온다. 그러므로 淳于意의 『上下經』이 바로 『上經』과 『下經』을 말하는 것이며, 『下經』은 內經 이전에 존재했었던 病理學방면의 醫學書籍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本病

『本病』에 관한 언급은 素問 「痿論篇 第四十四」에 나타난다. 「痿論篇」에서는

81) "下經曰 胃不和則臥不安 此之謂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27.)

82) 원문에는 "生於肝使內也"라고 하여 '肝'이 들어가 있으나 『太素』에는 '肝'字가 빠져있다. 이후 문장에도 臟腑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太素』와 같이 '肝'이 빠져야 옳은 것으로 본다.

83) "故下經曰 筋痿者 生於肝使內也.…故下經曰 肉痿者 得之濕地也.…故下經曰 骨痿者 生於大熱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66.)

84) "下經者 言病之變化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4.)

85)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 下經·揆度·陰陽 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洪元植의 같은 책, p. 314.)

86) "帝曰 却念上下經陰陽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8.)

"'本病'에서 '큰 經脈이 공허해지면 發病하여 脈痺證을 일으키다가 傳變하여 脈痿證을 일으킨다.'라고 하였다."[87]라고 '本病'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素問에도 「本病論」이 있는데, 「本病論」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질 않는다. 이것은 '刺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本病論」이 '素問遺篇'의 하나로 원래의 내용과는 다른 전본이 현재 전승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佚失되기 이전의 원래의 「本病論篇」에는 이러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陰陽

『陰陽』에 관한 언급은 素問의 「經脈別論篇 第二十一」「病能論篇 第四十六」「疏五過論篇 第七十七」「陰陽類論篇 第七十九」「解精微論篇 第八十一」 등에 나타난다. 이 외에 언급되는 內經 중의 '陰陽'은 서적의 의미가 아닌 일반적 의미의 용어인 '陰陽'을 나타낸다.

「經脈別論」에서는 "水飮이 胃로 들어가면 精微로운 기운이 넘쳐흐르게 하여 위로 脾에 수송하고, 脾氣가 精微로운 기운을 散布하게 하면 위로 올라가 肺에 집결했다가 물길을 조절하면서 통하게 하여 아래로 방광에 수송하니, 水穀의 精微로운 기운이 사방에 퍼져 五臟經脈의 기운과 함께 순행하되, 사계절과 五臟의 음양변화 및 '揆度' 등과 합치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규율로 삼는다."[88]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 '陰陽'의 해석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역대의 注釋家들이 '陰陽'을 五藏과 붙여 '五臟의 陰陽變化'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책이 확실한 뒤의 『揆度』과 붙여 '陰陽'을 별도의 책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病能論篇」과 「疏五過論篇」 및 「陰陽類論篇」에서 書名으로 『陰陽』을 분명히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 해석은 "… 四時와 五臟의 변화에 합치되는데, 『陰陽』과 『揆度』으로 일반적인 규율을 삼는다.(合於四時五藏 陰陽揆度以爲常也.)"라고 바뀌게 될 것이다.

「病能論篇」에서는 사람이 반듯하게 누울 수 없는 경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肺는 五臟의 덮개이니 肺氣가 왕성하면 脈形이 크고 脈形이 크면 반듯하게 누울 수 없는데, 論述은 '奇恒'과 '陰陽' 가운데 있다."[89]라고 하여 『奇恒』과 함께 책으로서의 『陰陽』을 언급하고 있다.

「疏五過論」에는 "이러한 치법을 신중하게 지키면 경전의 뜻과 같아 서로 밝아질 것이니, '上經', '下經', '揆度', '陰陽', '奇恒'의 다섯 가지에 부합시켜 明堂의 색으로 판정하되 (傳變하는 病證과 循行하는 經脈의) 終始를 자세히 살피면 거리낌없이 시행

87) "故本病曰 大經空虛 發爲肌痺 傳爲脈痿."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66.)

88) "飮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光.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 五藏陰陽 揆度以爲常也." (洪元植의 같은책, p. 86.)

89) "帝曰 人之不得偃臥者 何也? 岐伯曰 肺者藏之蓋也 肺氣盛則脈大 脈大則不得偃臥 論在奇恒·陰陽中." (洪元植의 같은 책, p. 173.)

할 수 있다."[90]라고 하여 『上經』, 『下經』, 『揆度』, 『奇恒』 등의 책과 함께 『陰陽』을 거론하고 있다.

「陰陽類論篇」에는 黃帝가 經脈이 순행하는 경로를 볼 때 五臟이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臟器가 가장 귀중한가 묻자, 雷公이 肝이 가장 귀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黃帝가 말하길 "그러나 上經·下經·陰陽·從容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대가 귀중하다고 한 것은 가장 낮은 것이다."[91]라고 하면서 『上經』, 『下經』, 『從容』 등의 서적과 함께 『陰陽』을 언급하고 있다.

「解精微論篇」에는 '陰陽'이 해석상 단순한 經絡의 '陰經과 陽經'으로 볼 수도 있고 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나타난다[92]. 즉, 이 부분 雷公이 한 말 가운데 '陰陽'을 단순한 經絡上의 '陰經과 陽經'으로 해석하게 되면 '陰陽'이 뒤의 '刺灸'와 붙여져 "臣이 배운 것을 전하면서 가르치되 모두 經典의 이론인 『從容』과 『形法』을 따라하여 陰經과 陽經에 刺鍼하거나 뜸을 뜨며, 湯液의 藥味로 자양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陰陽'을 『從容』, 『形法』과 함께 책으로 보면 "… 모두 經典의 이론인 『從容』과 『形法』 및 『陰陽』을 따라하여 刺鍼하거나 뜸을 뜨며, 湯液의 藥味로 자양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단정지울 수 없지만 본 「解精微論篇」에서 나오는 '陰陽'은 책이 분명한 『從容』 및 『形法』과 함께 竝記되고 있으므로 책으로서의 『陰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한가지 부언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漢初에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陽慶으로부터 전수받은 의학서적 가운데 비슷한 제목의 『陰陽外變』과 『接陰陽禁書』가 있었다. 이러한 『陰陽外變』과 『接陰陽禁書』는 內經에서 언급되는 『陰陽』과 선후관계를 따지지 어렵지만 아마도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유사한 책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93].

13. 陰陽傳

『陰陽傳』에 관한 언급은 「著至教論篇 第七十五」에 한번 나온다. 즉, "雷公이 '청컨대 醫學의 道를 전수받아서 그것을 외워서 깨닫고자 합니다.' 黃帝가 답하길 '그대

90)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 下經·揆度·陰陽 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洪元植의 같은 책, p. 314.)

91) "帝曰 却念上下經陰陽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8.)

92) "雷公請曰 臣授業傳之行教 以經論 從容 形法 陰陽 刺灸 湯藥 所滋行治 有賢不肖 未必能十全."(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24.)

93)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竹簡형태의 『合陰陽』도 있으나 그 내용이 房中術 및 관련한 養生方을 주로 수록하고 있어서 內經에서 언급하고 있는 '陰陽'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合陰陽』의 원문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周一謀著, 金南一·印昌植譯,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는 陰陽傳을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雷公이 '알지 못합니다.'"[94]라고 한 것이다.

이 부분 張介賓은 『類經·疾病類』에서 "'陰陽傳'은 고대의 경전이다."[95]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 고대에 별도의 『陰陽傳』이란 책이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病能論篇」「疏五過論篇」「陰陽類論篇」 등에 역시 비슷한 제목의 『陰陽』이란 책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陰陽』과 「著至教論篇」에 나오는 『陰陽傳』이 혹은 동일한 책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陰陽傳』이 素問과 靈樞를 통해서 「著至教論篇」에 단 한번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陰陽』과 『陰陽傳』이 동일한 책이라 간주하게 되면 『陰陽』이란 책은 『陰陽傳』이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陰陽類論篇 第七十九」에도 『陰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陰陽之論'을 언급하고 있는데, 本篇에서는 "… 정상적인 정도로써 판정하되 마음속으로 자세히 살펴 이를 '陰陽의 이론(陰陽之論)'에 부합시켜야 한다."[96]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陰陽』을 『陰陽傳』 또는 『陰陽之論』 등으로도 불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著至教論篇」에 나오는 '陰陽傳'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서술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즉, 이 부분 해석을 "黃帝가 답하길 '그대는 陰陽이란 책에서 전하는 내용(陰陽傳)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는가?'"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본편의 해석은 이와 같이 서술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本 「著至教論篇」의 '陰陽傳'은 별개의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陰陽』이란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4. 陰陽十二官相使

『陰陽十二官相使』는 素問의 「奇病論篇 第四十七」에 한번 거론되어 나온다. 본편에서 黃帝가 岐伯에게 입이 쓴(口苦) 병증에 대해 묻자, 岐伯이 "병명을 膽癉이라고 합니다. 저 肝은 그 기상이 장군에 해당하니 膽에서 내린 결단을 取하고 咽部가 그 신하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주 도모한 생각을 결단하지 못하므로 膽이 虛해져서 膽氣가 위로 넘쳐 입맛이 쓰게 되니 膽의 募穴과 背兪穴로써 치료하게 되는데, 그 치료의 내용은 '陰陽十二官相使' 중에 있습니다."[97]라고 하였다.

---

94) "雷公曰 請受道諷誦用解. 帝曰 子不聞陰陽傳乎? 曰 不知."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9.)

95) "陰陽傳 古經也."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279.)

96) "帝曰 所謂三陽者 太陽爲經. 三陽脈至手太陰 弦浮而不沈 決以度 察以心 合之陰陽之論."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8.)

97) "岐伯曰 病名曰膽癉. 夫肝者 中之將也 取決於膽 咽爲之使. 此人者 數謀慮不決, 故膽虛氣上溢 而口爲之苦. 治之以膽募兪 治在陰陽十二官相使中."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7.)

張介賓은 『類經·疾病類』에서 이 부분 주석을 달면서 "'治'字는 마땅히 '論'字가 되어야 하니 바로 「靈蘭秘典論」이다."[98]라고 하였고, 黃元御는 『素問懸解·奇病論』에서 「靈蘭秘典論」의 肝과 膽에 대한 논술내용을 '十二官相使論'으로 지칭·인용하면서 '十二官相使'가 곧 '十二藏相使論'이라고 하였다[99].

그러므로 「奇病論篇」에 언급되어 나오는 '陰陽十二官相使'는 혹 「靈蘭秘典論」의 토대가 되었던 망실된 고대의 의학서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張介賓과 黃元御의 견해대로 바로 「靈蘭秘典論」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5. 金匱

『金匱』에 대한 언급은 素問 「病能論篇 第四十六」에 나타난다. 이 외에 內經 중에 나오는 '金匱'는 책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서의 '金匱'가 아닌,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藏之金匱) 뜻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病能論篇」에서는 "'金匱'는 生死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上經』, 『下經』, 『揆度』, 『奇恒』 등의 책과 함께 책으로서의 『金匱』를 말하고 있다[100]. 따라서 『金匱』는 診斷學과 관련된 고대의 의학서적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16. 太始天元冊(天元冊)

『太始天元冊(天元冊)』에 관한 언급은 素問의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六微旨大論篇 第六十八」에 나타난다.

「天元紀大論篇」에서는 鬼臾區가 "'天元冊'의 문장에서 말하길 '우주는 광활하여 만물을 탄생시킬 기초를 닦아 근원을 조화시키니 만물은 이를 바탕으로 시작하고, 五行의 운행이 하늘의 운행주기를 다하여 만물의 근원인 眞靈에 氣를 산포시키니 음기의 근원인 乾元을 총괄하여 통제한다. 이리하여 九星이 높이 떠 밝게 빛나면서 七曜는 두루 선회하니 하늘에서는 陰陽이라 하고 땅에서는 剛柔라 하여 어두움과 밝음으로 이미 위치가 정해지면 寒暑가 왕래하는데, 계속 생성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생명을 품수받은 사물들이 모두 빛난다.'고 하였습니다."[101]라고 하여 『太始天元冊』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98) "治當作論 卽靈蘭秘典論也."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368.)

99) "十二官相使論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 十二官相使 卽十二藏相使論也." (黃元御, 素問懸解[明淸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10-111.)

100) "上經者 言氣之通天也. 下經者 言病之變化也. 金匱者 決死生也. 揆度者 切度之也. 奇恒者 言奇病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4.)

101) "鬼臾區曰 臣積考太始天元冊文曰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眞靈 摠統坤元 九星懸朗 七曜周旋 曰陰曰陽 曰柔曰剛 幽顯旣位 寒暑弛張 生生化化 品物咸章."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3.)

이 부분 王氷은 "天元冊은 天眞元氣의 운행에 관한 법칙을 기록한 책이다. 神農시대부터 鬼臾區의 10세조가 비로소 진술하면서 行世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太古적에 天文을 보고 점을 치는 신령스러운 글이었으며, 伏羲시대에 이르러 玉版에 새겨서 冊文이라고 하였으니 太古의 신령스러운 글(太古靈文)을 太始天元冊이라 한 것이다."[102]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즉, 『太始天元冊(天元冊)』이 天文現象을 관찰하여 그 운행법칙을 논술하고, 그 법칙에 따라 일상을 점치는 것을 수록한 太古의 책이라고 말한 것이다. 張介賓이나 黃元御 등도 『太始天元冊』을 上古의 서적으로 말하고 있다[103].

「五運行大論篇」에서는 岐伯이 "제가 太始天元冊의 글을 열람하니, 丹天의 기운은 28宿 가운데 牛宿·女宿과 戊分 사이에 지나가고, ■天의 기운은 心宿·尾宿과 己分 사이에 지나가며, 蒼天의 기운은 危宿·室宿과 柳宿·鬼宿 사이에 지나가고, 素天의 기운은 亢宿·氐宿과 昴宿·畢宿 사이에 지나가며, 玄天의 기운은 張宿·翼宿과 婁宿·胃宿 사이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104]라고 하면서 『太始天元冊』이 天文의 운행법칙을 수록하고 있는 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六微旨大論篇」에는 岐伯이 그 해의 客運과 客氣 司天이 함께 일치하는 것을 『天元冊』에서 '天符'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105].

『東醫寶鑑·歷代醫方』에도 伏羲時代의 저작으로 『天元玉冊』을 열거하고 있는데[106] 『東醫寶鑑』 전편을 통해서 『天元玉冊』을 인용한 부분이 한번도 나오질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歷代醫方」이 의학관련 중요한 서적을 역사적으로 단순히 나열한 것 일뿐, 『東醫寶鑑』의 編成과정에 직접 인용한 서적을 거명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반증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로 보건대 『太始天元冊(天元冊)』은 天文의 운행법칙을 논술하고 있는 內經 이전의 고대서적이 되고, 그 내용이 직접 질병을 다루고 있는 醫學書籍과는 거리가 있지만, 天地運行에 따른 人身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內經에 언급·편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天元玉冊』이 佚失된 古代의 문헌이 아니라 王氷의 저작으로 전승된 것도

---

102) "天元冊 所以記天眞元氣運行之紀也. 自神農之世 鬼臾區十世祖 始誦而行之 此太古占候靈文 洎乎伏羲之時 已鐫諸玉版 命曰冊文 太古靈文 故命曰太始天元冊也." (王氷, 黃帝內經素問注[四庫全書本],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 733-206.)

103) "太始天元冊文 蓋太古之文 所以紀天元也." 『類經·運氣類』
"太始天元冊文 上古之書" 『素問懸解』

104)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氐昴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6.)

105) "岐伯曰 天之與會也 故天元冊曰天符."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42.)

106) "天元玉冊 伏羲氏時作"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 69.)

있다. 그 근거는 新校正의 註釋에서 처음 나타난다. 즉 王氷의 『素問注·序』 아래의 新校正의 註釋에는 “王氏의 元珠는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고 하나 지금 元珠十卷과 昭明隱旨三卷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後人들이 가탁해서 만든 것 같다. 비록 이것이 왕씨의 책이 아니나 또한 素問 第19卷에서 22卷에 이르기까지 자못 그 뜻을 發明한 것이 있다. 그러나 昭明隱旨三卷과 지금 나오는 天元玉冊은 서로 表裏가 되지만 王氷의 뜻과 더불어 같지 않는 것이 많다.”[107]라고 하고 있다. 즉, 新校正에서는 王氷의 저작으로 『玄珠密語』와 『昭明隱旨』가 있으며, 그 『昭明隱旨』와 『天元玉冊』은 表裏관계가 있으나 王氷의 뜻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撰者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天元玉冊』도 王氷의 저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新校正時에는 王氷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玄珠密語』, 『昭明隱旨』, 『天元玉冊』 등이 존재했었는데, 新校正에서는 이것을 가탁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王氷의 이름으로 가탁된 『天元玉冊』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것이 남아있다. 馬繼興의 『中醫文獻學』에서는 南宋代 趙希弁의 『群齋讀書后志』 가운데 30권본의 ‘天元玉冊’이 실려있고, 元代 馬端臨의 『文獻通考』와 明代의 문헌 가운데도 그 書目이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의 栖芬室에 舊抄本 1種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다[108].

그러나 栖芬室에 보관되어 전해지는 현존 『天元玉冊』은 新校正의 주석과 같이 가탁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王氷 이전에 이미 『天元玉冊』이 존재했었고 이것을 王氷도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天元紀大論篇」에서 王氷은 『天元冊』은 원래 太古에 天文現象을 관찰하고 그 운행법칙을 논술한 신령스런 글(太古靈文)이었는데, 伏羲시대에 이르러 玉版에 새겨서 ‘冊文’이라 하였으며, 神農시대부터 鬼臾區의 10세조가 진술하면서 行世하게 되었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이 부분 기술 가운데 ‘行’은 行世를 의미하여 『天元玉冊』이 王氷當時에 이미 볼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스스로 본인의 저술인 아닌 上古時代의 저작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王氷時代의 『天元玉冊』과 현존하는 栖芬室의 抄本이 같은 책인지는 확실히 고증하기 어렵지만, 新校正의 주석 등으로 보건대 아마도 王氷當時의 원래의 『天元玉冊』은 비교적 일찍 佚失되고 현존하는 『天元玉冊』은 王氷以後 新校正以前에 王氷의 이름을 가탁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

107) “新校正云 詳王氏元珠 世無傳者 今有元珠十卷 昭明隱旨三卷 蓋後人附託之文也. 雖非王氏之書 亦於素問第十九卷 至二十二卷 頗有發明 其隱旨三卷 與今出所謂天元玉冊者正相表裏而與王氷之義多不同.” (王氷, 黃帝內經素問注[四庫全書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733-7.)

108) “天元玉冊28卷(又有30卷本) 上記林億等氏在素問王氷序注中曾提到此書 但未記撰人. 南宋趙希弁群齋讀書后志中曾載其目(30卷本). 此後元馬端臨文獻通考及明代的一些目錄中多載其書目. 但均爲傳抄本 未見刊本. 今有栖芬室藏舊抄本一種.”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01.)

된다.

그렇게 볼 때 원래의 『天元玉冊』, 즉 內經에 나타난 『天元玉冊』은 후대의 가탁된 것이 아닌 王氷以前의 책이 될 것이고, 그리고 王氷의 주석과 같이 上古時代의 文獻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內經 이전에 『太始天元冊(天元冊)』이란 책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內經 가운데 『太始天元冊(天元冊)』을 언급·인용하고 있는 것이 모두 「天元紀大論篇」「五運行大論篇」「六微旨大論篇」 등의 소위 '運氣七篇'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新校正에 따르면 '運氣七篇'은 唐代 王氷에 의해 補入되었다고 하였으며, 『太素』에 보이질 않는 運氣學說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 편들과 분량이나 체제에 있어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후대에 편성·편입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天元玉冊』이 內經以前의 고대문헌으로 존재했었다면 '運氣七篇'을 제외하고 다른 篇들에서도 충분히 출현·언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太始天元冊(天元冊)』의 내용에 있어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적어도 運氣學說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運氣學說의 형성은 빨리 잡아야 後漢代 이전을 벗어나지 못하며 대체적으로 魏晋代에 들어와서야 체계화·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太始天元冊(天元冊)』의 編成時點도 이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太始天元冊(天元冊)』은 後漢以後 魏晋南北朝時代에 걸쳐 運氣學說에 관련하여 天文의 운행법칙을 정리한 책이었는데, 唐代 王氷은 이것을 上古의 文獻으로 지칭했으나 비교적 일찍 佚失되었고, 以後 王氷의 이름으로 가탁된 『天元玉冊』이 만들어져 北宋代 新校正時에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7. 大要

『大要』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五常政大論篇 第七十」「六元正紀大論篇 第七十一」「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와 靈樞의 「九鍼十二原 第一」에 나타난다.

「五常政大論篇」에는 本篇의 末尾에 "그러므로 '大要'에서 말하길 '조화의 기틀을 대체할 수 없고 四時變化의 법칙을 거슬릴 수 없으며 반드시 調養하고 온화하게 하여 精氣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109]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內經 중에는 이와 비슷한 문구가 다시 나오질 않는다. 王氷이나 張介賓 등의 주석가들은 『大要』를 모두 上古時代의 책으로 말하고 있다[110].

「六元正紀大論篇」에는 "黃帝가 司天(天)과 在泉(地)의 기운이 太過(盈)하거나 不

109) "故大要曰 無代化 無違時 必養必和 待其來復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58.)

110) "大要 上古經法也" 『黃帝內經素問注』
"大要 上古書名" 『類經·論治類』

及(虛)하면 어떠한가? … 岐伯이 말하길 … '大要'에서 '심한 경우에는 5할이 정상적이면서 5할을 변화시키고, 경미한 경우는 7할이 정상적이면서 3할을 변화시키니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111]라고 『大要』의 문장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大要』의 문장은 內經의 다른 편에서는 나타나질 않는다.

「至眞要大論篇」에는 『大要』의 문장을 모두 5번 인용·수록하고 있다.

먼저 첫째, 黃帝가 方劑의 대소에 따른 규칙을 묻자, 岐伯이 "'大要'에서 '君藥이 1종류, 臣藥이 2종류인 것은 奇方의 규정이며, 君藥이 2종류, 臣藥이 4종류인 것은 偶方의 규정이며, 君藥이 2종류, 臣藥이 3종류인 것은 奇方의 규정이며, 君藥이 2종류, 臣藥이 6종류인 것은 偶方의 규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112]라고 하면서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둘째,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 標本과 逆順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岐伯은 다시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즉, "그러므로 '大要'에서 '별볼일 없는 의사는 경솔하게 자만하여 응당 알았던 것으로 여기지만, 熱病이라 말했던 것이 아직 끝나기 전에 寒病이 다시 시작하니 邪氣는 동일하나 병의 드러난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찰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經典의 취지를 어지럽게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113]라고 한 것이다.

셋째, 勝氣와 復氣가 나타나는 시기와 인체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다시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岐伯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러므로 '大要'에서 '저 봄의 따뜻함은 여름의 무더위로 변하고 저 가을의 서늘함은 겨울의 혹한으로 변하니, 사계절의 토대가 되는 土氣를 자세히 살펴 기후를 관측한 것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그 勝氣와 復氣의 끝나는 시기를 알 수 있고 그 시작하는 시기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114]라고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용된 『大要』의 문장은 일부분 똑같이 「脈要精微論篇 第十七」에 나오고 있다[115].

넷째, 黃帝가 그 해의 주재하는 六氣에 따라 補瀉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岐伯이 "'大要'에서 말하길 '少陽相火가 주재하는 해는 먼저 甘味를 쓰고 나중에 鹹味를 사용하며, 陽明燥金이 주재하는 해는 먼저 辛味를 쓰고 나중에 酸味를 사용하며, 太陽

111) "帝曰 天地之氣 盈虛何如? … 岐伯曰 … 大要曰 甚紀五分 微紀七分 其差可見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77.)

112) "大要曰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君二臣三 奇之制也 君二臣六 偶之制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1.)

113) "故大要曰 粗工嘻嘻 以爲可知 言熱未已 寒病復始 同氣異形 迷診亂經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2.)

114) "故大要曰 彼春之暖 爲夏之暑 彼秋之忿 爲冬之怒 謹按四維 斥候皆歸 其終可見 其始可知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3.)

115) "彼春之暖 爲夏之暑 彼秋之忿 爲冬之怒."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8.)

寒水가 주재하는 해는 먼저 鹹味를 쓰고 나중에 苦味를 사용하며, 厥陰風木이 주재하는 해는 먼저 酸味를 쓰고 나중에 辛味를 사용하며, 少陰君火가 주재하는 해는 먼저 甘味를 쓰고 나중에 鹹味를 사용하며, 太陰濕土가 주재하는 해는 먼저 苦味를 쓰고 나중에 甘味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116]라고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다섯째, 岐伯이 治病의 큰 원칙을 논하면서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즉, "그러므로 '大要'에서 말하길 '병리기전을 신중하게 지켜서 각기 그 소속된 원인을 관찰해 병의 증상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내고 없을 경우도 원인을 찾아내어야 하며, 邪氣가 왕성할 경우에는 이 원인을 알고 精氣가 허약할 경우에도 이 원인을 알아야 하니, 반드시 먼저 五行의 기운이 왕성하면 그 血氣를 소통시켜 調達하게 하여 화평한 지경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117]라고 한 것이다.

靈樞의 「九鍼十二原」에서는 刺鍼의 원칙을 논하면서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즉, "서서히 자침했다가 빠르게 발침하면 精氣가 實해지고, 빠르게 자침했다가 서서히 발침하면 邪氣가 虛해진다."라고 '大要'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후 그 내용에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118]. 이와 같이 「九鍼十二原」에 언급한 『大要』의 문장 및 부연설명의 내용은 素問의 「鍼解篇 第五十四[119]」와 靈樞의 「小鍼解 第三[120]」에 '大要'를 언급하지 않은채 다시 거론·인용되면서 그 용어들에 대해 註釋·補充說明을 하고 있다. 이것은 「鍼解篇」과 「小鍼解」가 「九鍼十二原」 보다 뒤에 편성된 것을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건대 『大要』는 治病의 원칙과 方劑의 運用, 刺鍼의 補瀉法, 運氣學說 및 六氣에 따른 五味의 補瀉法 등, 의학과 관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大要』는 상

116) "大要曰 少陽之主 先甘後鹹 陽明之主 先辛後酸 太陽之主 先鹹後苦 厥陰之主 先酸後辛 少陰之主 先甘後鹹 太陰之主 先苦後甘."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3.)

117) "故大要曰 謹守病機 各司其屬 有者求之 無者求之 盛者責之 虛者責之 必先五勝 疎其血氣 令其調達 而致和平 此之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4.)

118) "大要曰 徐而疾則實 疾而徐則虛. 言實與虛 若有若無. 察後與先 若存若亡. 爲虛與實 若得若失. 虛實之要 九鍼最妙 補寫之時 以鍼爲之."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1.)

119) "徐而疾則實者 徐出鍼而疾按之. 疾而徐則虛者 疾出鍼而徐按之. 言實與虛者 寒溫氣多少也. 若無若有者 疾不可知也. 察後與先者 知病先後也. 爲虛與實者 工勿失其法. 若得若失者 離其法也. 虛實之要 九鍼最妙者 爲其各有所宜也. 補寫之時者 與氣開闔相合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93.)

120) "徐而疾則實者 言徐內而疾出也. 疾而徐則虛者 言疾內而徐出也. 言實與虛 若有若無者 言實者有氣 虛者無氣也. 察後與先 若亡若存者 言氣之虛實 補寫之先後也. 察其氣之已下與常存也. 爲虛與實 若得若失者, 言補者佖然若有得也 寫則怳然若有失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2.)

당히 후대, 적어도 後漢以後에 편성되어진 책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大要』가 靈樞의 「九鍼十二原」을 제외하고는 素問의 소위 '運氣七篇'에서만 인용·언급되고 있으며, 또 언급된 『大要』의 문장내용은 內經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大要』는 運氣學說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마도 運氣學說이 성립된 이후인 後漢以後가 편성시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靈樞의 「九鍼十二原」에 '大要'를 언급·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後漢以後에 補入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 玄珠密語(密語)

『玄珠密語(密語)』에 관한 언급은 素問의 「刺法論篇 第七十二」와 「本病論篇 第七十三」에 나타난다.

「刺法論篇」에서는 五運六氣의 太過와 不及에 따라 太過하면 조절(取)하고 不及하면 자양(資)해야 하는데, "자양(資)하는 방법과 조절(取)하는 방법은 '密語'에서 나온다."[121]라고 岐伯이 말하고 있다. 張介賓은 『類經·運氣類』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玄珠密語』의 제1권 가운데 상세하게 나온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122].

「本病論篇」에는 干支에 따른 그 해의 太過와 不及을 논하면서 岐伯이 "'玄珠密語'를 注할 때 이르기를 '干支가 陽年인 30년에서 6년의 天刑인 해[123]를 제외하면 太過한 해가 24년임을 헤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124]라며 『玄珠密語』의 注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許浚의 『東醫寶鑑·歷代醫方』에서는 『玄珠密語』를 唐代 王氷의 저작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125]. 이와 같은 근거는 王氷이 素問을 주석하면서 덧붙인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原序』에 나타난다. 즉, "문장의 이치가 감춰져 있고 대충 논술하기 어려운 것은 별도로 '元珠'를 지어서 그 도리를 진술하였다."[126]고 한 것이다. 이것은 王氷

121) "岐伯曰 當取其化源也. 是故太過取之 不及資之. 太過取之 次抑其鬱 取其運之化源 令折鬱氣 不及扶資 以扶運氣 以避虛邪也. 資取之法, 令出密語."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p. 282-283.)

122) "資取化源之法 詳出玄珠密語第一卷中."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651.)

123) 庚子·庚午년에 司天이 客運인 金運을, 庚寅·庚申년에 司天이 客運인 金運을, 戊辰·戊戌년에 司天이 客運인 火運을 억제시키는 것 등의 6년은 '天刑'이라 하여 비록 陽年의 太過한 해에 속할지라도 太過한 運氣로써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해를 말한다.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下], 서울, 醫聖堂, 2001, p. 781.)

124) "注玄珠密語云 陽年三十年 除六年天刑 計有太過二十四年"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90.)

125) "玄珠密語 以上唐王氷所著"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 70.)

126) "辭理秘密 難粗論述者 別撰元珠 以陳其道." (王氷, 黃帝內經素問注[四庫全書本], 서울,

자신이 『元珠(玄珠)』라는 책을 저술했다는 언급이 되며, 여기에서 '元珠'라 한 것은 '玄'字를 諱하여 대신 '元'字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 新校正의 註釋에서는 "王氏의 元珠는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고 하나 지금 元珠十卷과 昭明隱旨三卷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後人들이 가탁해서 만든 것 같다. 비록 이것이 왕씨의 책이 아니나 또한 素問 第19卷에서 22卷에 이르기까지 자못 그 뜻을 發明한 것이 있다. 그러나 昭明隱旨三卷과 지금 나오는 天元玉冊은 서로 表裏가 되지만 王氷의 뜻과 더불어 같지 않는 것이 많다."[127]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新校正時에 『玄珠密語』, 『昭明隱旨』, 『天元玉冊』 등의 책이 존재했었고, 이것들은 모두 撰者가 王氷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新校正에서는 원래의 王氷 저작이 아닌 가탁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馬繼興의 『中醫文獻學』에서는 가탁된 『玄珠密語』가 北宋以後 10권본과 17권본으로 전승되었는데 卷數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것이며, 현재 明抄本(科圖藏)과 明正統時의 『道藏』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128]. 전술한 「刺法論篇」에서 張介賓이 이 부분의 내용은 『玄珠密語』의 제1권 가운데 상세하게 나온다고 주석을 달고 있는 것도 北宋以後 가탁된 『玄珠密語』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玄珠'라는 명칭은 《莊子·天地》에 나오는 것[129]으로 道家에서 道의 本體를 譬喩할 때 사용되는 명칭이다. 따라서 원래의 『玄珠密語』는 이전의 運氣學說에 관한 내용을 王氷이 편집해 책으로 만들면서 道家的 색채가 짙은 '玄珠'라는 題名을 달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玄珠密語』는 소위 '素問遺編'인 「刺法論」과 「本病論」에만 언급되어 나타나며, 『玄珠密語』는 前漢以前의 古代文獻이 아닌 後代에 運氣學說의 내용을 王氷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19. 脈經

『脈經』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示從容論篇 第七十六」에 한번 나온다. 「示從容論篇」에서는 黃帝가 사소한 것까지 밝혀 완전무결하게 치료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방도를 묻자, 雷公이 "臣이 청하여 '脈經'의 上下篇을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차이를 구별하고 類推해도 여전히 완전무결하게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더 이상) 어떻게 충분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130]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大星文化社, 1995, p. 733-7.)

127) "新校正云 詳王氏元珠 世無傳者 今有元珠十卷 昭明隱旨三卷 蓋後人附託之文也. 雖非王氏之書 亦於素問第十九卷 至二十二卷 頗有發明 其隱旨三卷 與今出所謂天元玉冊者正相表裏而與王氷之義多不同." (王氷, 黃帝內經素問注[四庫全書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733-7.)

128)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01.

129) "黃帝 遊乎赤水之北 登乎崑崙之丘 而南望還歸 遺其玄珠" (莊子翼[漢文大系九], 東京, 富山房, 1984, 天地第十二, p. 34.)

130) "雷公曰 臣請誦脈經上下篇 甚衆多矣. 別異比類, 猶未能以十全 又安足以明之." (洪元植

부분 '脈經'의 해석에 있어 張介賓은 "古代에 『脈經』이 있었는데, 생각건대 바로 素問의 「脈要精微論」과 「平人氣象論」 등의 뜻이었을 것이다."[131]라고 하여 별도의 고대문헌인 『脈經』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高世栻은 『脈經』을 바로 『靈樞經』이라고 보았다[132]. 이와 같은 高世栻의 견해는 '上經'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病能論篇」에 주석을 달면서도 본 「示從容論篇」을 거론하면서 일관되게 『脈經』을 『靈樞經』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脈經'이 張介賓의 견해와 같이 佚失된 고대의 문헌인지, 아니면 高世栻의 말처럼 靈樞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本篇에서 雷公이 '脈經'의 上下篇을 진술했다라고 한 것을 보건대 '脈經'은 고대의 문헌이 아닌 『靈樞』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公乘陽慶으로부터 淳于意가 전수 받은 의학서적 가운데 『脈書』가 나오며,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帛書에도 『脈法』이 있고, 張家山漢墓에서는 馬王堆의 『脈法』과 그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竹簡형태의 『脈書』가 발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건대 「示從容論篇」에서 雷公이 말한 『脈經』이 바로 『靈樞』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內經 이전에 이미 脈을 다루고 있는 의학서적인 『脈經』(혹은 『脈書』, 『脈法』)이 별도로 존재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脈經』(혹은 『脈書』, 『脈法』)의 내용이 素問에서 脈을 다루고 있는 「脈要精微論」, 「平人氣象論」, 「玉機眞藏論」, 「三部九候論」 등의 篇에 일정 부분 散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20. 脈變

『脈變』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玉版論要篇 第十五」와 「玉機眞藏論篇 第十九」에 각기 1번씩 나타난다. 즉, 전술한 것과 같이 「玉版論要[133]」와 「玉機眞藏論[134]」에서는 『揆度』, 『奇恒』, 『五色』 등과 함께 『脈變』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脈變』은 脈搏의 변화를 논하고 있는 醫學書籍으로 생각되는데, 內經이전의 문헌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揆度』, 『奇恒』, 『五色』 등과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脈變』도 內經이전의 고대문헌이 아닌가 추정된다. 다만 素問에서는 題名만 나올 뿐 『脈變』에 수록된 문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앞서 말한 淳于意의 『脈書』와 馬王堆漢墓의 『脈法』 및 張家山漢墓에서 발굴된 『脈書』 등과 동

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1.)

131) "古有脈經 意卽脈要精微平人氣象等論之義."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281.)

132) "脈經卽靈樞經" 『素問直解』

133) "請言道之至數 五色·脈變·揆度 奇恒 道在於一."

134) "吾得脈之大要 天下至數 五色·脈變·揆度·奇恒 道在於一."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52.)

일한 서적인지는 판정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脈書'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될 뿐이다.

21. 脈法

『脈法』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 나타난다. 「五運行大論篇」에서는 黃帝가 기후변화로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天地의 氣, 즉 司天과 在泉의 客氣는 어떻게 관찰하는가 묻자, 岐伯이 "이것은 診脈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脈法'에서 '天地(司天과 在泉)의 변화는 脈으로 진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135]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脈法』의 인용문은 內經에 다시 나오질 않는다. 그런데 앞서 기술한 馬王堆漢墓에도 똑같은 題名의 『脈法』이 있는데, 발굴된 『脈法』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장이 나오질 않는다[136]. 따라서 「五運行大論篇」에 언급한 『脈法』은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脈法』과는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脈法』이 運氣學說과 관련된 저작으로 생각되는 점, 소위 '運氣七篇' 중의 하나인 「五運行大論篇」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으로 생각해보건대 「五運行大論篇」에 언급된 『脈法』은 前漢以前의 고대문헌이 아니라 後漢以後 王氷以前에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2. 脈要

『脈要』에 대한 언급은 素問의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에 한번 나타난다. 「至眞要大論篇」에서는 岐伯이 "'脈要'에서 '봄에 沈하지 않고 여름에 弦하지 않으며 가을에 數하지 않고 겨울에 濇하지 않는 것을 四塞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137]라고 하면서 脈象과 四時가 相應하지 않는 것을 '四塞'이라 한다는 『脈要』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素問에도 유사한 題名의 「脈要精微論篇 第十七」이 있는데, 四時에 따른 脈象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어서 유사한 내용을 살펴 볼 수는 있으나 이와 똑같은 문장은 나오질 않는다.

黃元御는 『素問懸解』에서 『脈要』를 古書라고 주석을 달아[138] 內經 이전의 고대

135) "帝曰 天地之氣, 何以候之? 岐伯曰 天地之氣 勝復之作 不形於診也.. 脈法曰 天地之變 無以脈診 此之謂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7.)

136) 『脈法』은 분량이 많지 않은데 佚失된 부분이 많은 채로 발굴되었다. 이후 張家山漢墓에서 그 기본적 내용이 일치하는 『脈書』가 발견되면서 『脈法』의 대체적인 모습이 밝혀졌다. 原文은 다음 2종의 책을 참조할 것. (周一謀著, 金南一·印昌植譯,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山田慶兒,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研究[譯注篇],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5.)

137) "脈要曰 春不沈 夏不弦 冬不濇 秋不數 是謂四塞."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3.)

138) "脈要 古書" (黃元御, 素問懸解[明淸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문헌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脈要'는 本篇을 제외하고 內經에서 다시 거론된 것이 없으며, 오직 한번 거론되어 나오는 본 「至眞要大論篇」이 王氷이 補入한 소위 '運氣七篇'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볼 때, 『脈要』가 前漢以前에 존재했던 古代文獻이라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脈要』는 고대문헌이 아니라 王氷時代에 존재했던 脈의 이치를 논술·편집한 별도의 의학관련 傳本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23. 形法(比類形名)

『形法』에 관한 언급은 素問의 「解精微論篇 第八十一」에 한번 나온다. 「解精微論篇」에서는 雷公이 "臣이 배운 것을 전하면서 가르치되 모두 經典의 이론인 '從容'과 '形法'을 따라 하여 陰經과 陽經에 刺鍼하거나 뜸을 뜨며, 湯液의 藥味로 자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현명하고 어떤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여 반드시 완전무결할 수 없었습니다."[139]라고 하여 『從容』과 함께 『形法』을 거론하고 있다. 본 「解精微論篇」의 經文은 『太素』에서 그 내용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140] 『太素』의 經文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從容'과 '形法'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고유명사가 아닌 서술형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즉, '從容'과 '形法'을 붙여 '從容形法'으로 보고 '자세히 관찰하여(從容) 치법을 확정한다(形法)'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뒤에 기술할 '從容'이 素問의 다른 篇들에서 책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形法'도 '從容'과 함께 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가지 덧붙이자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病能論篇」「疏五過論篇」「陰陽類論篇」 등에서 『陰陽』을 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본 「解精微論篇」에 나오는 '陰陽'도 열거한 『從容』 및 『形法』과 마찬가지로 책으로 해석해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素問의 「疏五過論篇 第七十七」에는 『形法』과 비슷한 이름의 『形名』이 언급되어 나타난다. 즉 黃帝가 질병을 치료할 때의 五過와 四德에 대해 묻자 雷公이 "臣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疑惑이 많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五過와 四德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形名'을 비교·유추해 보면 그 經典의 내용에 인용된 것이 없어서 진심으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141]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 기술할 『從容』이 『比類從容』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건대, 『形名』도 본래의 題名

213.)

139) "雷公請曰 臣授業傳之行教 以經論 從容 形法 陰陽 刺灸 湯藥 所滋行治 有賢不肖 未必能十全."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24.)

140) "雷公曰 臣受業 傳之以教 皆以經論 從容形法 陰陽刺灸 湯液藥滋 所行治有賢不肖 未必能十全 謹聞命矣." (李相協, 黃帝內經素問과 黃帝內經太素의 經文 比較·硏究, 東義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7, pp. 271-272.)

141) "雷公避席再拜曰 臣年幼小 蒙愚以惑 不聞五過與四德 比類形名 虛引其經 心無所對."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3.)

이 『比類形名』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이렇게 '比類'를 서술형이 아닌 『形名』과 붙여 고유명사로 보게 되면, 그 해석이 "『比類從容』에도 그 經文의 내용에 인용된 것이 없어서 진심으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形名(比類形名)』이 『形法』과 동일한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추측컨대 本書는 원래의 題名이 『比類形名』이었고, 이것을 簡稱하여 『形名』이라고도 불렀으며, 또 그 『形名』에 일반적인 의미의 '法'字를 붙여 『形法』으로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龍伯堅은 본 『形法』은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지만 靈樞의 「陰陽二十五人篇」이나 「通天篇」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142].

24. 從容(比類從容)

『從容(比類從容)』을 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素問의 「示從容論篇 第七十六」「疏五過論篇 第七十七」「陰陽類論篇 第七十九」 등이다. 이 외에 나타나는 內經 중의 '從容'은 책의 의미가 아닌 '조용하다', '침착하다', '넉넉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示從容論篇」에서는 黃帝가 하는 말 가운데 3차례 『從容』이 언급된다. 먼저 "저 脾脈이 虛浮하면 肺脈과 유사하고, 腎脈이 小浮하면 脾脈과 유사하며, 肝脈이 緊急하면서 沈散하면 腎脈과 유사하니, 이것은 모두 醫師들이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단지 '從容'에서 이를 터득해야 한다."[143]라고 하였고, 또 "저 '從容'에서 말하기를 '대개 나이가 많으면 병의 원인을 六腑에서 찾아야 하고, 나이가 어리면 經脈에서 찾아야 하며, 나이가 젊으면 五臟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144]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本篇 말미에 "… '比類從容'을 인용하여 밝히되 이로써 '診經'이라 명명할 것이니, 이것은 지극한 의학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145]라고 한 것이다.

「疏五過論篇」에서는 黃帝가 五過를 논하는 말 가운데 "診脈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比類奇恒從容'을 알아야 한다. 醫師가 되어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診脈을 충분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니, 이것이 治療하는 가운데 3번째 과실이 된다."[146]라고 '從容'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必以比類奇恒從容知

142)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p. 129.

143) "夫脾虛浮似肺 腎小浮似脾 肝急沈散似腎 此皆工之所時亂也 然從容得之."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1.)

144) "帝曰 夫從容之謂也 夫年長則求之於腑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於藏." (같은 책, 같은 쪽.)

145) "… 明引比類從容 是以名曰診輕 是謂至道也." (같은 책, p. 312.)

146) "善爲脈者 必以比類 奇恒 從容知之 爲工而不知道 此診之不足貴 此治之三過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3.)

之'를 역대의 주석가들이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 즉, 高世栻은 전체를 고유명사가 아닌 서술형으로 풀어 해석해서 "반드시 기이한 병과 일반적인 병의 차이를 비교·유추해서 침착하게 잘 알아야 한다."[147]라고 해석하였고, 黃元御는 "반드시 '比類', '奇恒', '從容'으로써 그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148]라고 해석하였으며, 章楠은 "比類奇恒과 從容은 모두 古經의 篇名이다."[149]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比類는 비교·구별하여 비슷한 것들끼리 나누는 것이다. 奇恒은 특이한 것과 일반적인 것이다. 從容은 古經의 篇名이다."[150]라고 하여 '比類奇恒'은 서술형으로 해석하고 '從容'은 책으로 보았다.

「陰陽類論篇」에는 2번 '從容'이 언급되어 나온다. 먼저 黃帝가 經脈이 순행하는 경로를 볼 때 五臟이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臟器가 가장 귀중한가 묻자 雷公이 肝이 가장 귀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黃帝가 말하길 "그러나 上經·下經·陰陽·從容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대가 귀중하다고 한 것은 가장 낮은 것이다."[151]라고 하면서 전술한 『上經』, 『下經』, 『陰陽』 등의 서적과 함께 『從容』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雷公이 말하는 부분에 『從容』이 다시 언급된다. 즉 "臣은 말씀하신 뜻을 다 알았는데, 전수해 주신 經脈의 이치를 배우고 '從容'의 이치를 외우고 익혀 이로써 '從容'의 내용과 부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陰陽도 알지 못하겠고 雌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152]라고 한 것이다.

「解精微論篇」에서는 '形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從容』이 언급되어 나온다. 즉, 雷公이 "臣이 배운 것을 전하면서 가르치되 모두 經典의 이론인 '從容'과 '形法'을 따라 하여 陰經과 陽經에 刺鍼하거나 뜸을 뜨며, 湯液의 藥味로 자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현명하고 어떤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여 반드시 완전무결할 수 없었습니다."[153]라고 하여 『形法』과 함께 『從容』을 거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건대 『從容』은 經脈의 순행과 脈象의 변화, 診脈의 이치 등을 논술하고 있는 診斷學 관련 책으로 생각되며, '從容'이란 명칭은 診脈時 脈象의 변화를 조용하고 침착하게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147) "異與恒常之病 必比類相參 從容知之" 『素問直解』

148) "必以比類·奇恒·從容 審度而知之" 『素問懸解』

149) "比類奇恒 從容 皆古經篇名" 章楠 『靈素節注類篇·治法準則總論·診治五過』

150) "比類 比別例類也 奇恒 異常也 從容 古經篇名"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252.)

151) "帝曰 却念上下經陰陽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18.)

152) "雷公曰 臣悉盡意 受傳經脈 頌得從容之道 以合從容 不知陰陽 不知雌雄." (같은 책, 같은 쪽.)

153) "雷公請曰 臣授業傳之行教 以經論 從容 形法 陰陽 刺灸 湯藥 所滋行治 有賢不肖 未必能十全."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24.)

한 「示從容論篇」의 말미에 '比類從容'이라 말하고도 있는데, 이 '比類'를 '比較·類推'의 서술형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문장의 구조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比類從容'은 하나의 단어가 되어야만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從容』이란 책의 원래의 題名은 『比類從容』이 되고, 그 의미는 '事物에 比較·類推하여 脈象의 변화를 조용하고 세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내용 중에 『從容』을 언급하면서 篇題에도 '從容'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示從容論篇」은 말 그대로 '『從容』의 뜻을 나타내는 논의'가 篇題의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示從容論篇」은 內經以前의 고대문헌인 『從容』을 기본으로 하여 그 뜻을 천명하고 있는 篇이 된다고 생각된다.

25. 禁脈

'禁脈'에 대한 언급은 靈樞의 「經脈 第十」에 한번 나온다. 「經脈」에서는 雷公이 黃帝에게 묻기를 "'禁脈'에서 '무릇 자침하는 이치는 經脈에서 시작하니 그 행하는 바를 운영하고 그 度量을 명확히 하여 안으로 五臟을 순서있게 하고 밖으로는 六腑를 구별한다.'고 했는데 그 도리를 다 듣고 싶습니다."[154]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雷公이 인용한 『禁脈』의 문장은 靈樞의 「禁服 第四十八」에 비슷한 문장이 그대로 언급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155]. 張介賓도 雷公이 「經脈」에서 인용한 '禁脈'은 '禁服'이 되어야 하며, 바로 靈樞經의 「禁服篇」이 된다고 하였다[156]. 그러므로 靈樞의 「經脈」에 인용되는 '禁脈'은 별도의 문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靈樞의 「禁服」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6. 外揣

'外揣'에 대한 언급은 靈樞의 「禁服 第四十八」에 한번 나타난다. 「禁服」에서는 雷公이 黃帝에게 하는 말 가운데 "… '外揣'에서 '허다하고 복잡한 것을 총괄하여 하나로 만든다.(渾束爲一)'고 말한 것도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157]라고 『外揣』를 인용·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靈樞에 똑같은 題名의 「外揣 第四十五」가 있으며, 그 「外揣」에 "渾束爲一"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나타난다[158]. 그러므로 靈樞의 「禁服」에 나타나는 '外揣'는 별도의 문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靈樞의 「外揣」를

154) "雷公問於黃帝曰 禁脈之言 凡刺之理 經脈爲始 營其所行 制其度量 內次五藏 外別六府 願盡聞其道."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79.)

155) "凡刺之理 經脈爲始 營其所行 知其度量 內刺五藏 外刺六府"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21.)

156) "脈當作服 卽本經禁服篇也"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150.)

157) "… 外揣 言渾束爲一 未知所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21.)

158) "黃帝曰 … 余知其合于天道人事四時之變也 然余願褧之毫毛 渾束爲一 可乎?"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09.)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外揣'와 마찬가지로 素問에서도 篇名을 末尾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氣交變』, 『天元紀』, 『六元正紀』 등이다. 즉,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의 말미에는 "黃帝가 이에 좋은 징조가 있는 날을 택하여 이를 靈蘭之室에 秘藏하고 아침마다 이를 읽되 '氣交變'이라 명명했는데 齋戒하지 않고서는 감히 발설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전해지게 했다."[159]라고 하여 本篇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나온다.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에도 말미에 鬼臾區의 답변에 黃帝가 이 내용을 "청컨대 玉版에 새겨 金匱에 秘藏하고 이름을 '天元紀'라 하겠다."[160]고 말하고 있다. 「六元正紀大論篇 第七十一」에서는 本篇의 말미에 岐伯의 답변에 黃帝가 이 내용을 "청컨대 靈蘭之室에 秘藏하고 이름을 '六元正紀'라 명명하되, 齋戒하지 않고서는 감히 보여주지 않고 신중히 전해지도록 하겠다."[161]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氣交變』, 『天元紀』, 『六元正紀』 등의 언급은 별도의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本篇의 이름을 지칭한 것이 된다.

27. 兵法

『兵法』에 대한 언급은 靈樞의 「逆順 第五十五」에 한번 나온다. 「逆順」에서는 伯高가 말하길 "'兵法'에서 '확대되는 기세를 맞이하지 말고 위풍당당한 진용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며…"[162]라고 『兵法』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孫子兵法·軍爭篇第七[163]』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靈樞의 「逆順」에 인용한 『兵法』은 바로 『孫子兵法』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內經에서 『兵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본 「逆順」의 문장이 유일하지만, 「六節藏象論篇 第九[164]」에 나오는 부분도 유사한 내용을 『孫子兵法·兵勢篇第五』에서 찾아 볼 수 있다[165]. 그러므로 內經에 의학관련 서적이 아닌 『孫子兵法』도 인

159) "乃擇良兆而藏之靈室 每旦讀之 命曰氣交變 非齋戒不敢發 愼傳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50.)

160) "帝曰 光乎哉道 明乎哉論! 請著之玉版 藏之金匱 署曰天元紀."(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4.)

161) "帝曰 至哉 聖人之道! 天地大化 運行之節 陰陽之政 寒暑之令 非夫子孰能通之! 請藏之靈蘭之室 署曰六元正紀. 非齋戒不敢示 愼傳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78.)

162) "伯高曰 兵法曰 無迎逢逢之氣 無擊堂堂之陣."(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44.)

163) "無邀正正之旗 勿擊堂堂之陣 此治變者也."(孫武, 孫子兵法, 서울, 一信書籍出版社, 1994, p. 171.)

164) "草生五色 五色之變 不可勝視 草生五味 五味之美 不可勝極."(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6.)

165) "聲不過五 五聲之變 不可勝聽也. 色不過五 五色之變 不可勝觀也. 味不過五 五味之變

용·언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28. 出典을 표시하지 않는 引用文

이상으로 內經 안에는 그 出典이 표시되어 문장이 인용·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밖에 확실한 출처를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經'이나 '論'으로 인용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나타난다. 이러한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은 대부분 '經言', 또는 '論言' 등으로 引用文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出典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素問의 「瘧論篇 第三十五」에는 出處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經'으로 표현하여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黃帝가 "'經'에서 말하길 '邪氣가 有餘하면 덜어내고 精氣가 부족하면 보충한다.'라고 하였다."[166]라고 하여 '經'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장은 靈樞의 「根結 第五」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167]. 그런데 素問의 「調經論篇 第六十二」에서는 같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刺法』의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68]. 또한 같은 「瘧論篇」에 "'經'에서 말하길 '열이 펄펄 끓는 경우는 자침하지 말고, 脈이 혼탁하며 문란할 경우에도 자침하지 말아야 하며, 땀이 줄줄 흐를 경우도 자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69]라며 '經'의 문장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장의 순서만 약간 다를 뿐 같은 내용이 靈樞의 「逆順 第五十五」에 그대로 나오는데, 「逆順」에서는 '刺法'의 문장으로 인용·언급하고 있다[170]. 또 같은 「瘧論篇」에 "그러므로 '經'에서 말하길 '바야흐로 邪氣가 왕성할 때 치료하면 반드시 精氣도 손상될 것이니, 邪氣가 쇠퇴할 즈음에 치료하면 일이 반드시 大昌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171]라며 '經'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거의 같은 문장이 靈樞의 「逆順 第五十五」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172].

不可勝嘗也."(孫武, 孫子兵法, 서울, 一信書籍出版社, 1994, pp. 115-116..)

166) "帝曰 夫經言 有餘者寫之 不足者補之."(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1.)

167) "故曰 有餘者寫之 不足者補之 此之謂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51.)

168) "黃帝問曰 余聞刺法言 有餘寫之 不足補之 何謂有餘? 何謂不足?"(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16.)

169) "岐伯曰 經言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1.)

170) "刺法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漉漉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44.)

171) "故經言曰 方其盛時 必毁 因其衰也 事必大昌 此之謂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1.)

172) "故曰 方其盛也 勿敢毁傷 刺其已衰 事必大昌."(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44.)

이상으로 보건대 「瘧論篇」에 언급되는 '經'은 「刺法」이나 靈樞의 「逆順」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刺法'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素問의 「刺法論篇」에 나오질 않는데, 이것은 '刺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現存하는 「刺法論篇」이 원래의 것이 아닌 후대에 補入된 것이기 때문이다. 佚失되기 이전의 원래의 「刺法論篇」에는 이러한 내용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에서는 '邪氣가 왕성한 것은 덜어내고 精氣가 虛乏한 것은 보충해 준다'는 '經'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173], 이와 같은 문장은 靈樞의 「脈度 第十七[174]」「通天 第七十二[175]」「大惑論 第八十[176]」 등에 출처를 말하지 않은채 똑 같이 언급되어 나온다. 따라서 素問의 「至眞要大論篇」에 언급한 '經'은 靈樞의 「脈度」, 「通天」, 「大惑論」 등의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素問의 「瘧論篇」이나 「調經論篇」에 문장의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의 내용(有餘者寫之 不足者補之)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至眞要大論篇」의 '經'은 靈樞의 篇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調經論篇」에 언급한 바와 같이 『刺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靈樞의 「歲露論 第七十九」에는 黃帝가 말하는 부분에 "'經'에 말하길 '여름에 暑邪에 상하면 가을에 瘧疾을 앓는다.'고 하였는데…"[177]라며 '經'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素問의 「瘧論篇 第三十五」에서는 '經'이 아니라 '論'으로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178]. 이와 같이 여름에 暑邪에 상하여 가을에 瘧疾을 앓게 된다는 것은 素問의 「四氣調神大論篇 第二[179]」와 「生氣通天論篇 第三[180]」에도 나타나며, 이외에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篇 第五[181]」, 靈樞의 「論疾診尺 第七十四[182]」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歲露論」과 「瘧論篇」에서 말한 '經'이나 '論'은 「四氣調神大論篇」「生氣通天論篇」「陰陽應象大論篇」「論疾診尺」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陰

173) "經言 盛者寫之 虛者補之"(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3.)
174) "盛者寫之 虛者飮藥以補之"(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15.)
175) "盛者寫之 虛者補之"(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03.)
176) "盛者寫之 虛者補之"(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43.)
177) "黃帝問于岐伯曰 經言夏日傷暑 秋病瘧 瘧之發以時 其故何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38.)
178) "帝曰 論言夏傷於暑 秋必病瘧 今瘧不必應者 何也?"(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2.)
179) "夏三月 此謂蕃秀 天地氣交 萬物華實 夜臥早起 無厭於日 使志無怒 使華英成秀 使氣得泄 若所愛在外 此夏氣之應 養長之道也. 逆之則傷心 秋爲痎瘧 奉收者少 冬至重病."(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4.)
180) "夏傷於暑 秋爲痎瘧"(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7.)
181) "故曰…夏傷於暑 秋必痎瘧"(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
182) "故曰…夏傷於暑 秋生痎瘧"(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10.)

陽應象大論篇」과 「論疾診尺」에서는 '故曰'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므로 아마도 本篇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生氣通天論篇」보다 「四氣調神大論篇」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歲露論」과 「瘧論篇」의 '經'과 '論'은 「四氣調神大論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素問「痿論篇 第四十四」에서도 '論'을 언급하고 있다. 즉, 本篇에서는 "'論'에서 말하길 '痿病을 치료할 때는 유독 陽明經을 취한다.'고 하였는데…"[183]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靈樞의 「根結 第五」에서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것[184]을 볼 수 있어서 「痿論篇」에서 언급한 '論'은 靈樞의 「根結」이 아닌가 생각된다.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에도 '論'의 문장이 언급된다. 즉, 本篇에서는 "'論'에서 말하길 '五行의 운행이 서로 이어받아 각기 주재하고 한 해가 끝나는 날까지 한바퀴 돌아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185]라며 '論'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장이 「六節藏象論篇 第九」에 똑같이 나타난다[186]. 이로 보건대 「天元紀大論篇」의 '論'은 「六節藏象論篇」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서도 '論'을 2번 언급하고 있다. 즉, 本篇에서는 "'論'에서 말하길 '天地의 動靜은 神明이 기틀이 되어 陰陽의 기운이 승강하면 寒暑로 그 징조를 드러낸다.'고 하였다."[187]라며 '論'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문장이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에도 나타난다[188]. 이외에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篇 第五」에는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라는 표현이 나오고[189], 靈樞의 「刺節眞邪 第七十五」에도 陰陽의 징조가 寒暑로 드러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190]. 그러므로 「五運行大論篇」에서 이와 같이 언급한 '論'은 「氣交變大論篇」이나 「陰陽應象大論篇」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五運行大論篇」에서는 다시 한번 '論'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黃帝가 하는 말 가운데 "'論'에서 말하길 '天地는 만물

183) "帝曰 如夫子言可矣 論言 治痿者 獨取陽明 何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66.)

184) "故痿疾者 取之陽明 視有餘不足."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50.)

185) "論言 五運相襲 而皆治之 終碁之日 周而復始 余已知之矣."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3.)

186) "五運相襲 而皆治之 終碁之日 周而復始 時立氣布 如環無端 候亦同法."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66.)

187) "論言天地之動靜 神明爲之紀 陰陽之升降 寒暑彰其兆."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6.)

188) "故曰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紀 陰陽之往復 寒暑彰其兆 此之謂也."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99.)

189) "是故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5.)

190) "…陰陽者 寒暑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16.)

의 上下이고, 左右는 陰陽의 기운이 升降하는 통로이다.'라고 하였는데…"[191]라며 '論'을 거론한다. 이와 같은 문장은 「陰陽應象大論篇 第五[192]」와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193]」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五運行大論篇」에서 2번 언급되고 있는 '論'의 문장은 모두 「陰陽應象大論篇」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五運行大論篇」의 '論'은 「陰陽應象大論篇」이 아닌가 생각된다.

「六元正紀大論篇 第七十一」에도 '論'의 문장을 언급하고 있다. 즉, "'論'에서 말하길 '熱性 약물을 사용할 때는 더운 시기를 피하고, 寒性 약물을 사용할 때는 추운 시기를 피해야 한다.'고 하였는데…"[194]라고 하며 '論'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熱無犯熱 寒無犯寒"이라는 문장은 內經의 다른 篇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없고, 다만 같은 「六元正紀大論篇」에 岐伯이 하는 말 가운데 먼저 언급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195]. 그렇다면 이와 같은 「六元正紀大論篇」의 '論'은 별도의 다른 문헌이나 內經의 다른 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本篇의 문장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篇의 문장을 뒤에서 '論言'이라고 표현·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혹시 '論言' 이하의 논술부분은 후대에 附入된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에서도 '論'의 문장을 2번 인용하고 있다. 먼저 黃帝가 하는 말 가운데 "'論'에서 말하길 '人迎脈과 寸口脈이 상응하여 마치 줄을 당길 때 大小가 동등한 것과 같은 경우를 平人이라 한다.'고 하였는데…"[196]라고 하며 '論'을 언급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靈樞의 「禁服 第四十八」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197]. 아울러 本篇의 뒤에 다시 한번 '論'을 언급하고 있다. 즉, "'論'에서 말하길 '寒證은 熱性 약물로 치료하고, 熱證은 寒性 약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198]

191) "帝曰 善. 論言 天地者 萬物之上下 左右者 陰陽之道路 未知其所謂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6.)

192) "故曰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4.)

193) "然天地者 萬物之上下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金木者 生成之終始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3.)

194) "帝曰 善. 論言 熱無犯熱 寒無犯寒. 余欲不遠寒 不遠熱 柰何?"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77.) - 洪元植의 책에는 '熱無犯熱'이 '熱無狂熱'로 되어 있으나 本篇의 앞부분에도 '熱無犯熱'이 나오므로 '熱無犯熱'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고쳤다.

195) "岐伯曰 熱無犯熱 寒無犯寒 從者和 逆者病 不可不敬畏而遠之 所謂時與六位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70.)

196) "論言 人迎與寸口相應 若引繩 小大齊等 命曰平."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94.)

197) "黃帝曰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是者 名曰平人."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221.)

198) "帝曰 論言 治寒以熱 治熱以寒 而方士不能廢繩墨 而更其道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05.)

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五常政大論篇 第七十」에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199]. 그러므로 「至眞要大論篇」에서 언급한 '論'은 靈樞의 「禁服」과 素問의 「五常政大論篇」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밖에 '經'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出典을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離合眞邪論篇 第二十七」에서는 "'經'에서 말하길 '邪氣가 왕성해지거나 精氣가 쇠약해지면 病邪가 左右로 치우쳐져 傳變하니 上部에서 下部의 병을 調治하고 좌측에서 우측의 병을 調治하되, 邪氣의 有餘와 精氣의 不足은 五輸穴에서 補瀉한다.'고 하였는데…"[200]라며 '經'의 문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문장은 內經이나 그 밖의 다른 문헌에 다시 나오질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經'은 內經 이외의 별도의 다른 문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內經의 다른 篇에 수록된 문장이었는데 후대에 전승되면서 脫簡된 것인지 확실한 진위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本篇에서 '經'의 문장을 인용하기 전에 黃帝가 "나는 '九鍼'이 9편이라 들었으나 그대가 이를 아홉으로 나누어 81편을 만들었는데 이미 그 뜻을 다 통달했다."[201]라고 말하면서 이후 '經'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이 부분의 '經'의 내용은 별도의 구체적인 문헌이나 內經의 다른 篇에 수록된 것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九鍼, 즉 鍼經(靈樞)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調經論篇 第六十二」에서는 "'經'에서 말하길 '陽分의 精氣가 虛하면 외부가 한랭해지고 陰分의 精氣가 虛해지면 내부에 열이 나고, 陽分의 邪氣가 왕성하면 외부에 열이 나고 陰分의 邪氣가 왕성하면 내부가 한랭해진다.'고 하였는데…"[202]라고 하며 '經'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內經에는 이와 똑같은 문장은 나타나질 않고 다만 素問의 「瘧論篇 第三十五[203]」와 靈樞의 「刺節眞邪 第七十五[204]」에 '內熱'과 '外熱'에 관한 비슷한 언급이 나올 뿐이다.

「解精微論篇 第八十一」에서는 黃帝가 雷公에게 "그대는 유독 저 '經'에서 말하기를 '閉塞되어 厥證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읽지도 못하였는가?"[205]라고 하면서 '經'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厥則目無所見"이라는 똑같은 문

199) "治熱以寒 溫而行之 治寒以熱 涼而行之"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p. 257-258.)

200) "經言 氣之盛衰 左右傾移 以上調下 以左調右 有餘不足 補寫於榮輸 余知之矣."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04.)

201) "黃帝問曰 余聞九鍼九篇 夫子乃因而九之 九九八十一篇 余盡通其意矣."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04.)

202) "帝曰 經言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 余已聞之矣 不知其所由然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218.)

203)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130.)

204)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315.)

장은 內經에 나오질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언급된 '經'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本篇의 앞부분에 雷公이 黃帝에게 소리내어 울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콧물이 적게 나오는 까닭을 묻자, 黃帝가 그 이치는 '經'에 나와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206]. 그런데 이와 같이 黃帝가 '經'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靈樞의 「口問 第二十八」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207]. 아울러 「口問」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液이 고갈되고, 液이 고갈되면 精氣가 灌溉되지 못하며, 精氣가 空竅를 灌溉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208]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解精微論篇」에서 '經'의 내용으로 언급한 "厥則目無所見"의 논술 부분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로 보건대 「解精微論篇」의 '經'은 靈樞의 「口問」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으로 內經에는 出典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經'이나 '論'으로 引用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經'이나 '論'은 대체적으로 內經의 다른 篇들에 수록된 문장을 本篇에서 인용할 때 표현하는 용어로 생각된다. 아울러 '經'과 '論'은 그 용례에 있어 때로는 「素問」을, 때로는 「靈樞」의 문장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 「素問」과 「靈樞」를 따로 구별하는 명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Ⅳ. 맺는말

이와 같이 『黃帝內經』에는 醫學書籍名, 또는 篇名으로 인정되는 많은 인용문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引用書들은 戰國時代 이전의 것들도 있고, 後漢以後 唐代以前의 後期에 편입된 것들도 있을 것이다.

즉, 內經以前의 前期에 해당되는 引用書들로는 『揆度』, 『奇恒』, 『五色』, 『脈變』, 『九鍼』, 『上經』, 『下經』, 『陰陽(陰陽傳)』, 『金匱』, 『形法』, 『從容』, 『兵法』 등의 12종이 되며, 後漢以後 唐代以前의 後期에 內經에 편입된 引用書로는 『天元玉冊』, 『大要』, 『玄珠密語』, 『脈法』, 『脈要』 등의 5종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鍼經』과 『脈經』은 『靈樞』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鍼論』은 靈樞의 「官能」에서 本篇의 前述된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205) "且子獨不誦不念夫經言乎? 厥則目無所見."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24.)

206) "公請問 哭泣而淚不出者 若出而少涕 其故何也? 帝曰 在經有也."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 p. 324.)

207) "黃帝曰 人之哀而泣涕出者 何氣使然? 岐伯曰 心者 五藏六府之主也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 口鼻者 氣之門戶也. 故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藏六府皆搖 搖則宗脈感 宗脈感則液道開 液道開 故泣涕出焉."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59.)

208) "液者 所以灌精濡空竅者也. 故上液之道開則泣 泣不止則液竭 液竭則精不灌 精不灌則目無所見矣 故命曰奪精."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靈樞』, p. 159.)

보인다.

이 외에 『刺法』과 『本病』은 佚失되기 이전의 원래의 「刺法論」과 「本病論」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陰陽十二官相使』는 素問의 「靈蘭秘典論」, 『熱論』은 靈樞의 「熱病」, 『禁脈』과 『外揣』는 각각 靈樞의 「禁服」과 「外揣」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보건대 前期에 해당되는 引用書들은 『兵法』을 제외하고는 모두 醫學과 직접 관련 된 것들로, 기초이론, 병리, 진단, 치료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前期에 편입된 서적은 診斷에 있어서 望診과 切診이 주를 이루고,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는 藥物보다는 鍼灸가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후기에 인용된 서적들의 내용은 대부분 運氣學說과 관련이 있으며, 『天元玉冊』과 『玄珠密語』는 天文의 운행법칙을 運氣學說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학관련 서적은 아니었으나, 天地와 人身의 상관관계을 논하면서 內經에 포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參考文獻-

1. 班固, 漢書藝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2.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3. 莊子翼(漢文大系九), 東京, 富山房, 1984.
4. 孫武, 孫子兵法, 서울, 一信書籍出版社, 1994.
5.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6. 王氷, 黃帝內經素問注(四庫全書本), 서울, 대성문화사, 1995.
7.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8. 黃元御, 素問懸解(明淸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9. 黃元御, 靈樞懸解(明淸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1.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15.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16.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17.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18. 周一謀,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法仁文化社, 2000.

19. 山田慶兒,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硏究(譯注篇),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85.
20. 金勳, 扁鵲의 行蹟과 名義에 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14권 1호.
21. 嚴晳祺, 中國醫學書目의 分類에 關한 硏究, 圓光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7.
22. 李相協, 黃帝內經素問과 黃帝內經太素의 經文 比較·硏究, 東義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7.
23. 김영식, 중국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창작사, 1986.
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25.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7.